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秦 弘 燮*

(東亞大學校)

〈目 次〉

- | | |
|------------------|---------|
| I. 舍利의 뜻 | IV. 考 察 |
| II. 舍利의 信仰 | V. 結 語 |
| III.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 |

I. 舍利의 뜻

舍利(Sarira)는 釋迦世尊의 身骨의 뜻으로 釋迦 涅槃후 최초로 건립된 根本舍利八塔에는 물론 釋迦의 眞骨舍利가 봉안되어 있었고 그 후 maurya王朝는 印度를 통일한 다음 열렬한 불교신봉자인 Asoka王은 전국에 8만 4천의 탑을 세우고 根本舍利八塔에 藏置하였던 眞骨舍利를 거두어 이들 塔에 分納하였다고 한다. 8만4천이라는 숫자는 불교계에서 자주 쓰는 숫자로서 그 수가 실수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치고 眞身舍利를 봉안하였다는 根本舍利八塔이나 Asoka王의 8만4천탑은 지금 하나도 볼 수 없으므로 眞身舍利의 현존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世尊이 인간의 형태로 태어나서 成佛한 應身佛일진대 그 身骨의 量에는 한도가 있었을 것이므로 설사 전기한 탑들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10수세기가 경과한 지금까지 탑 안에서 전해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후 불교국가에서 계속 건립된 이 많은 탑에 봉안할 舍利 즉 眞身舍利에 대신할 것이 필요해졌고 身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經과 像이 되겠지만 信心에 기준을 둔다면 鑑지스강의 모래알일지라도 金銀이나 七寶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므로 眞身舍利에 대신할 經像 기타 각종의 장엄구들이 납치되는데 이들을 法身舍利라고 하였다. 따라서 法身舍利는 다양하여 귀금속제의 불상에서부터 香木에 이르는 불교관계의 사물은 물론 珠玉·銅錢·針筒 등 세속적인 일상용구에 까지 미치고 있다. 본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유물들은 바로 이 장엄구들이고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화상을 볼 수 있고 신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미술사의 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I. 舍利의 信仰

탑은 釋迦世尊의 身骨인 眞身舍利를 奉安하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그 후 Asoka왕의 8만4천탑 같은 수많은 탑이 세워지면서도 탑은 불사리를 봉안하는 곳이라는 建塔精神은 유지되었으나 봉안한舍利는 그 성격이 변화되어 眞身舍利에서 法身舍利로 옮겨갔다. 그러나 신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어서 眞身舍利를 봉안하던 때나 法身舍利를 봉안하던 때나 탑의 존엄성은 여전하여 동일한 신심에서 예배가 행해졌던 것이다.

舍利信仰은 불교전래와 함께 중국에서 전래되었고 동시에 중국을 통한 「眞身舍利」의 전래는 신라시대부터 있어서 언제나 신성한 행사로서 대처하였고 간혹 異蹟이 따르기도 하였다. 三國遺事 등 古記錄에 보이는 舍利將來 또는 舍利奉安과 이에 따르는 신앙에 관한 기록은 주목되거니와 고려시대에도舍利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돈독하여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라·고려 양대에 걸쳐 舍利信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引用하기로 한다.

◎ 신라시대

- (1) 國史云(略)善德王代 貞觀十七年癸卯 慈藏法師所將頭骨·佛牙·佛舍利百粒 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寺 一分在太和寺 一分并袈裟在通度戒壇 其餘未詳所在(三國遺事 卷三 前後所持舍利)
- (2)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 分安於柱中 并通度寺戒壇 及大和寺塔 以福池龍之請(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
- (3) 其中更依無后浮經 置小石塔九十九軀 每軀納舍利一枚 陀羅尼四種經一卷 卷上安舍利一具於鐵盤之上 明年七月九層畢功 雖然利柱不動 上慮柱本舍利如何 令臣伊干承旨 取壬辰十一月六日 率群僚而往 專令舉柱觀之 礎臼之中有金銀高座 於其上安舍利琉璃瓶 其爲物他不可思議 唯無年月事由記 ○廿五日還依舊置 又加安舍利一百枚 法舍利二種 專命記題事由 略記始建之源改作之故 以示萬劫表後迷矣(皇龍寺九層塔利柱本記 第三板內面)
- (4) 神文大王 五戒應世 十善御民 治定功成 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 乘天所以神睦太后 孝昭大王 奉爲宗晉聖覆禪院伽藍 建立三層石塔 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 神睦太后遂以長辭 高昇淨國 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 孝昭大王登靈 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 佛舍利四 全金彌陀像六寸一軀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 安置石塔第二層 以下以此福田(慶州皇福寺三層石塔 金銅舍利函銘).
- (5) 釋彥傳(中略)建立玆塔 在佛舍利十粒(鷲棲寺石塔發見舍利盒記)

◎ 고려시대

- (1) 是月 修開國寺塔 安舍利 設戒壇(高麗史 世家卷四 顯宗 九年閏四月, 1018)
- (2) (上略)庚申歲十月內 於皇妃聖鄉黃州南面 感得有眞身舍利出現 光明浮耀兼又於皇考山陵之近處 有普明寺內 更得靈牙出現 聖上乃備儀仗 駕出郊外 迎來以其虎深虔敬 有不可思議之感應 遂於當時創

- 造石塔一座七層 安此靈牙一隻并舍利五十粒(下略)(玄化寺碑一庚申은 高麗 顯宗 12年, 1021)
- (3) (上略)又咸雍元年十一月 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 完院中常規十條 新豎五層石塔 眞身佛舍利 四十二粒安邀(下略)(三國遺事 卷三 伯嚴寺石塔舍利一咸雍元年是 高麗 文宗 19年, 1065)
- (4) (前略)塔內舊標釋迦舍利五枚 定光如來舍利二枚 分身 一枚并三枚 鑰筒藏置開出萬人致敬 右舍利 壬子十一月十五日 還置塔中 又了明願佛鑄像 學有影佛鑄像 尊藏塔中 右塔昔書載錄 大平興國四年 起塔 大平興國七年壬午畢造焉(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一大平興國四年은 高麗 景宗 4年, 979)
- (5) 大宋宣和元年己卯五年(睿朝十五年) 入貢使鄭克永·李之美等所將佛牙 令內殿置奉者是也(中略) 至任辰歲 移御次 內官念處中忘不收檢 至丙申四月 御願堂神孝寺 釋蘊光請致敬佛牙 聞于上 勅令內 臣 遍檢宮中 無得也(中略) 夜中(金)瑞龍家圓蘊裏 有投鄭物聲 以火檢看 乃佛牙函也 函本內一重沈 香合以重純金合 以外重白銀合 次外重瑠璃合 次外重螺鈿函 各幅子如之 令但瑠璃函爾(中略)(高宗) 二十一年甲申 修補國清寺金塔 國主興莊穆王后 幸妙覺寺 集衆慶讚吃 右佛牙與洛山寺 水晶念珠如 意珠 君臣與大衆 皆瞻奉頂戴 後并納金塔內(三國遺事 卷三 前後所將舍利)
- (6) 奉佛弟子高麗國清州牧內塘地 長岬寺往持重大師靈椿(中略) 敬造青石塔一座九層兼香臺 安置釋迦 文佛 以立金剛種子云 時正豐七季三月 日誌(石塔記一正豐七年은 高麗 毅宗16年, 1162)
- (7) (上略)歲在癸未 道場堂南庭中 立青石塔九層 藏舍利 時第四層上五色雲盤僂 移時而散三也(醴泉 龍門寺重修記).
- (8) (前略)恭讓君賴將相之力 復祖宗之緒 即位以來事佛盡力 爰命僧天珪等 募工興役 辛未二月始事 掘 舊址填木石以固厥其 迄冬迺豎縱橫六楹 克壯且廣畢至五層(中略) 未幾恭讓以失道 自遜子外而大命 集于殿下(中略) 於是董工益勤 功成告成 實壬申冬十二月也 癸酉之春 塗墍丹護 翬飛雲表 鳥翔天際 金碧炫耀 暉映半空 上安佛舍利 中庑大藏 下置毘盧肖像 所以資福邦家永利萬世也(陽村集 卷12, 演 福寺塔重創記)

이상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쉐리에 대한 신앙은 眞身舍利나 法身舍利的 차별 없이 깊었고 그에 대한 장엄 또한 장중하고 화려하였다.

佛經에 의하면 쉐리는 7重의 용기에 넣었다고 하였고 앞에서 든 바와 같이 三國遺事에도 5중의 용기에 쉐리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쉐리容器 자체의 장엄은 물론 佛陀의 身骨에 대한 존중의 뜻에서 출발하였지만 이 존중의 표시는 신심이나 신앙의 형태 또는 문화의 발달상 내지는 지역적인 문화형태나 또는 그 국가나 사회의 빈부의 정도에도 좌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용기의 형태나 재질은 가지각색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따라 시대와 신앙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형형 색색일 수 있다.

Ⅲ.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莊嚴具들은 外護의 목적도 있지만 佛子들이 施納하는 공양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잡다함은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이들 장엄구 중에는 오로지 신심으로 시납하여 미술사에서는 거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사상적·예

술적·기술적으로 우수성이 발휘된, 말하자면 당대 미술문화의 척도로 삼을만한 것이 많다. 과연 고려시대의 장엄구들을 관찰하면 그들은 신라이래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적인 특색이 발휘되어 하나의 맥락을 이어왔다고 할만하다. 고도의 신심은 고도의 예술성을 동반하였으므로 장엄구에는 당대의 최고의 기술이 채택되어 그 가운데는 미에 대한 당대의 안목이 표출되어 있어서 그것이 곧 미술사연구의 한 분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탑파의 수는 기록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으나 현존례로 보아 상당히 많은 탑파가 건립되었을 것이고 그들 탑에는 모두 장엄구들이 장치되었을 것이지만 자연적 인위적인 파손으로 인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수는 극히 적다. 미술사에 관한 論考는 원형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사리장엄구 또한 산일된 후의 잔여 장엄구는 그것이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논고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으나 그 잔여유물 중에도 때로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에 논고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장엄구 개개의 고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들이 가지는 가치의 비중을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하였다.

1. 원형이 유지되어온 상태에서 학술적인 조사에 의하여 발견된 예

1) 牙山邑內里石塔(圖 1-1)-①·②

1920년 牙山郡新昌面邑內里의 石塔을 移建할 때 銀製如來立像 1軀, 銀製圓筒 1개, 玻璃製小瓶 破片이 발견되었다.

銀佛은 얼굴과 머리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방형의 尊容 各부의 刻線은 알아볼 수 있어서 온화한 표정이 엿보이고 法衣는 通肩에 前面에 雙線으로 된 반원형 衣文이 있다. 가슴에는 掩掖衣가 보이고 法衣 밑에 裙衣의 자락이 느러졌는데 두 발목에도 각각 雙線 衣文이 있다. 오른손은 施無畏, 왼손은 與願印이지만 손바닥을 약간 옆으로 틀었다. 臺座은 6葉 伏蓮 밑에는 六角반침이 있고 위에는 높은 蓮實이 있어 佛身을 받고 있다(높이 8.65cm).

圓筒은(높이 13.2cm, 徑 8.3cm) 같은 크기의 2개의 圓筒을 겹쳤고 표면에 평행횡선이 촘촘히 양각되었다. 上端에는 손상이 있다.

이 일련의 유물의 출토상대는 불분명하나 佛像과 小瓶은 이 圓筒에 담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小瓶은 곧 舍利瓶이었던 듯하다.

2) 淨土寺五層石塔發見遺物(圖 1-2)-①·②

원소재인 漆谷郡若木面福星里에서 1924년 景福宮으로 이건설할 때 일련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들 중에는 形止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귀중하나 舍利具 자체는 銅盒 1, 銅碗 1과 舍利壺 1의 간단한 내용이다.

銅盒(높이 8.7cm, 徑 16.4cm)은 거의 같은 형태의 몸과 뚜껑을 합친 납작한 형태인데 입이 맞닿는 자리에는 몸과 뚜껑 외면에 각각 넓은 턱을 만들어 품위를 돋구었으나 표면장식은 없다.

銅碗(높이 3.6cm, 口徑 10.4cm)은 얇은 碗形이고 표면에 장식은 없으나 口緣部에 테를 둘러서 그 作風이 앞의 銅盒과 흡사하다. 뚜껑은 원래 없었던 듯 하다.

舍利壺는 綠釉가 아름답게 발색된 陶壺로서 작은 꼭지가 있는 뚜껑을 갖추었다. 높이 3.4cm에 비하면 어깨 밑은 팽창되어 4.4cm나 된다. 이 舍利壺는 銅碗에 반혀져서 形止記와 함께 銅盒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 일련의 舍利具는 그 내용이 간단하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銅盒과 銅碗은 고려시대 청동기의 우아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舍利壺는 外來品인듯 하다.

3) 扶餘長蝦里三層石塔發見遺物(圖 1-3)-①~④

이 석탑은 扶餘 定林寺址五層石塔의 양식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가미한 점에서 주목되어 왔으나 1931년 파손된 기단부에서 목상자에 담긴 일련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1962년 해체수리때 2층담신 중앙 舍利孔에서 金銅製外瓶과 銀製內瓶이 발견되었는데 舍利는 이곳에 藏置되었었다.

外瓶(높이 9.6cm)은 도금이 거의 벗겨졌고 녹이 있어 표면의 細刻한 문양을 덮었다. 병 어깨에는 兩耳가 있고 連環이 달려있다. 표면에는 線彫의 飛鳥보화로 9區의 花房을 만들고 그 안에 6엽 연화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외의 공간은 寶相花文과 魚子文으로 메우고 口緣과 굽에는 연화를 새겼다. 뚜껑 위에는 8엽연화를 조각하였고 중앙에 塔形의 꼭지가 있다.

內瓶(높이 4cm)은 산화되어 전면이 보라색 녹으로 덮여있을 뿐 문양은 없다. 뚜껑에는 2단 탑형의 꼭지가 있다.

1931년 기단부에서 발견된 유물은 象牙製阿彌陀如來立像 1軀, 木造金箔小塔 3基, 黑漆盒·銀盒·梵文陀羅尼經 각1, 水晶玉·銀小環·銀뒤꽂이 등이다.

이 중 如來立像은(높이 4.1cm) 小像이면서 조각은 매우 정교하다. 밑에 長方形 받침이 있고 短促한 中臺를 사이에 두고 위에는 타원형 仰蓮이 있다. 머리는 螺髮에 相好와 衣文의 표현은 정교하고 法衣는 通肩이고 中品中生의 阿彌陀手印을 結하고 있다.

木造金箔의 小塔 3基는 5층 2基(높이 4.2cm, 3.6cm)와 3층 1基(높이 2.3cm)인데 금박이 전면에 잘 남아있고 相輪까지 完存한 完好한 형태이다.

4) 光州西五層石塔發見遺物(圖 1-4)-①~③

光州市西區龜洞公園에 있는 五層石塔의 第二層 屋身 상면에 舍利孔을 파고 그 중앙에 舍利器를 안치한 다음 서쪽과 남쪽에는 경문을 놓고 남쪽에는 다시 無文圓形銅鏡 한 장을 세워놓았다. 사리기 밑에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玉을 깔았는데 흙먼지가 사리기의 基壇까지 차 있어서 경문은 그 속에서 거의 부식되었다.

이들 일련의 장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臺座·身部·屋蓋의 3부로 구성된 方形殿閣形의 金銅舍利器(높이 15cm)이다. 臺座는 위가 체감된 2단의 괴임이 있는 下臺 위에 잘룩한 中臺가 있는데 그 4면에는 古式의 眼象 1座씩이 투각되었고 그 위에 역시 체감되는 2단의 괴임이 있어 上臺를 받치고 있다. 上臺 중앙에는 난간을 돌렸는데 隅角과 각면 중앙에 別片을 못으로 고정시켜 각

면을 2분한 다음 각면에는 如意頭文을 투각하여 장식하였고 난간 밖에는 각 隅角에 四天王像을 別造하여 고정시켰다. 이상과 같은 基臺部는 오랜 동안 흙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탓으로 도금이 탈락된 부분이 많고 그러한 손상은 四天王像의 하반신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난간이상의 도금은 잘 남아있다. 身部和 屋蓋部는 한데 붙었으나 基臺에서는 분리되는데 身部는 난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내부에는 重辨仰蓮이 있어 銀製舍利盃를 받치고 있다.

身部는 네 귀에 隅柱形을 표시하고 각 면에는 銅板에 찍어서 만든 頭光을 갖춘 菩薩像 1軀씩을 붙였으나 지금은 모두 분리되어 있다. 屋蓋는 四注式이고 기와골의 표시 없이 마루만 내려와 추녀에 이르렀다. 각 추녀와 처마 중간에는 따로 仰蓮을 만들어 붙였고 추녀 밑에는 風鐸을, 처마의 연꽃 밑에는 영락을 각각 달았다. 정상에는 4엽 伏蓮 위에 연꽃봉오리를 높이 솟은 듯이 붙였다.

이 장엄구 안에 있던 銀製舍利壺(높이 2.7cm)에는 특별한 문양은 없으나 뚜껑 상부 중심에 鍮製의 꼭지가 달렸는데 꼭지는 鍮製圓盤 중앙에 붙혔고 주위에는 連珠文이 있다.

銅鏡(지름 9.1cm)은 周緣에 반원형 턱이 있고 중앙에 꼭지 하나가 있는 無文圓鏡이다.

이 외에도 織造된 주머니에 80~90알의 진주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佛子가 시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장엄구 중에서 殿閣形이라는 舍利器의 외형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舍利器는 신라 시대부터 있어서 그 여운이라고 생각되지만 신라시대의 것에 비하면 간략한 편이다. 舍利壺가 유리제 아닌 銀製壺인 점, 銅鏡의 施納 등은 주목된다.

이 舍利장엄구들의 제작시기는 石塔創建 당시 즉 고려초기의 작으로 추정된다.

5) 益山王宮里五層石塔發見遺物(圖 1-5)-①~⑤)

益山郡金馬面王宮里소재 五層石塔을 해체보수할 때 발견된 일련의 장엄들이다. 이 석탑은 원래 기단 주위에 흙을 쌓아서 마치 土築기단 같이 보였는데 해체한 결과 그 안에 석축기단이 축조되어 있었다.

이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제1층 屋蓋상면 중앙에 놓인 方形基石 위에 설치한 동서 2개의 舍利孔과 기단 밑 心礎石 위에 설치한 3개의 品字形 사리공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두 장소에서 발견된 장엄구는 각각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기단부에 설치한 3개의 사리공 중 2개는 비어있었다고 한다.

제1층 옥개석 상면에는 東孔에 舍利瓶이, 西孔에 金剛經金板이 장치되어 있었다. 사리병은 세련되고 품위있는 형태의 綠色長頸(높이 7.7cm)이고 仰蓮을 양각한 금제의 꽃송이 모양의 마개로 막았다. 밑에는 따로 받침이 있는데 花文이 조각된 방형 銅板의 중앙에 覆碗形의 圓座를 마련하고 그 위에 重辨仰蓮이 받치고 있는 碗이 있어서 圓底의 사리병이 안전하게 놓이도록 하였다.

이 사리병은 2중의 함 속에 들어있었는데 외함은 金銅製이고 內函은 金製이다(圖 1-5)-①, ②, ③). 외함은 16.4cm×18.8cm, 높이 12.3cm의 장방형이고 표면에는 장식문양이 없으며 도금은 내면에만 남고 외면은 거의 벗겨져 칠만 남았다. 내함은 7.2cm×6cm, 높이 9.8cm의 크기로

서 외함속에 여유있게 놓일만한 크기이다. 4면에는 外周에 聯珠文帶를 돌리고 중앙에는 큰 연화를 음각하였는데 間地는 모두 魚子文으로 채워져 있다. 뚜껑의 4면에는 聯珠文帶를 돌리고 四注式인 落水面 4면에는 연꽃을 음각한 다음 間地를 魚子文으로 채웠다. 정상에는 4엽 伏蓮위에 仰蓮을 얹었다.

金剛經板(圖 1-5)-⑤은 14.8cm×13.7cm의 얇은 금판 19매에 金剛經文을 찍었는데 字体가 매우 정교하고 아마도 木板 같은 것을 이용하여 찍은 듯 하다. 19매의 금판은 경첩으로 연결하였고 차례로 겹친 다음 金帶로 결속하도록 되어있다. 이 金板을 넣었던 함도 2중인데(圖 1-5)-④) 18.6cm×25.1cm, 높이 11.3cm의 외함은 사리병을 넣었던 외함과 같은 금동제이고 도금은 벗어져 칠만 남아 있다. 내함은 19.1cm×15.3cm, 높이 10.3cm의 장방형 금제이나 표면에는 장식문양이 없고 모를 죽인 뚜껑 중앙에 국화모양의 연꽃을 돌린 중심에 고리가 달려있다.

한편 기단사리공에는 靑銅佛像과 靑銅鈴이 남아 있었다. 불상은 높이 9cm의 如來立像으로서 머리에는 큰 內髻가 있고 尊容은 온화하며 목은 가늘고 짧다. 法衣는 通肩에 가슴이 넓게 노출되었고 두 무릎을 따라 U자형 衣文이 있으며 두 손은 通印이다. 臺座는 伏蓮과 仰蓮으로 된 圓坐이고 光背는 火焰文과 唐草文을 투각한 큰 擧身光인데 발견후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이 일련의 유물들은 유리제 사리병, 동제불상 등의 作風으로 보아 고려초기의 作으로 추정된다.

6) 瑞山普願寺址五層石塔發見遺物(圖 1-6)-①~⑤

1968년 6월 瑞山郡雲山面龍賢里소재 普願寺址의 五層石塔을 해체보수할 때 4층屋蓋石에서 舍利莊嚴具가, 또 基壇積石層에서 小形塼塔과 木塔 잔재가 발견되었다.

4층옥개석의 舍利孔에는 金銅方匣이 있었고 그 안에 舍利와 莊嚴具가 納置되었는데 장엄구는 金銅內匣. 유리舍利瓶 各 1과 蠟石製小塔 12基와 玉類들이다.

이들 장엄구를 內包한 石塔은 고려초기의 건립으로 추정되며 이 장엄구들도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엄구 중 舍利瓶이 유리製라는 점과 다수의 납석제를 비롯한 塼·木의 小塔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金銅方匣(8.1cm×6.9cm, 높이 2.2cm)은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으나 뚜껑 上面에는 도금이 남아 있어서 菩薩立像과 童子像의 刻線이 선명하게 보인다. 보살의 머리에는 寶冠을 썼고 上體는 裸形에 밑에 裳衣를 걸쳤다. 왼손은 어깨까지 들어서 花枝를 잡았고 오른손은 느러뜨려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동자상의 머리에 대고 있다. 細線의 조각은 매우 정교하고 佛身에는 唐風의 여운이 남아있다. 몸체 底面에는 雙鉤體로 「諸法縱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이라는 法語가 4행에 걸쳐 음각되었다.

이 方匣 안에 있던 金銅內匣은 장타원형(높이 5cm, 長幅 3.5cm, 短幅 1cm)이고 금색이 잘 남아있다. 넓은 양면에는 四天王像을 線刻하고 間地에는 魚子文을 찍었으며 상하의 마구리에는 如意頭文을 변형 연속시킨 문양을 雙鉤體로 조각하고 間地는 역시 魚子文으로 채웠다.

蠟石製小塔은 모두 방형탑으로서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이는 4.7cm에서 13.8cm에 걸

쳐있다. 표면장식이 없고 신라석탑을 모각한 層塔이지만 그 중에는 추녀의 반전이 뚜렷한 고려석탑의 형식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屋身에 비하여 屋蓋石의 폭이 현저하게 넓은 木塔의 여운이 있어서 지역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리小瓶(높이 3.4cm)은 暗綠色이며 口緣이 약간 外反되고 밑은 완만하게 불려서 爪形을 이루었으며 밑은 圓底이다. 舍利瓶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玉類는 綠·藍·紅色의 大小 各종의 玉이며 材質은 유리·호박 등이다.

7)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遺物(圖 1-7) — ①~④)

8각이라는 특이한 평면구성의 이 石塔은 1970년 10월 일부 부재를 新材로 대체하면서 해체보수하였고 그 때 제1층 塔身과 제5층 屋蓋石에 藏置되어 있던 舍利藏嚴具가 발견되었다. 제1층 塔身 圓형사리공에는 金銅函·銀盒·銅盒·銅鏡·舍利瓶·香囊·香木·經軸 등이 있었고 제5층 옥개석 방형사리공에는 銀製鍍金如來立像이 있었다.

두 곳의 장치물 중에서 제1층 塔身에 있던 것이 주가 됨은 그곳에 사리병을 納置하였던 점으로 분명하다. 이 사리병은 수정제의 瓢形인데(높이 5.4cm) 병 내부에 徑 5mm의 수직공을 뚫었고 香木으로 막았다. 이 사리병은 雞卵大의 은함(높이 9.7cm, 口徑 8.9cm)속에 「全身舍利經」이라고 表題한 經軸(부식되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과 함께 들어 있었다. 銀盒은 밑이 편평한 두개의 碗을 아래 위에서 합친 외형으로서 盒身 위에는 턱을 만들었고 표면은 무문이다. 이 銀盒은 다시 銅盒 속에 銅鏡·香囊·金銅方盒 등과 함께 넣었다. 銅盒은 身高 6.3cm, 口徑 18cm, 蓋高 5.3cm, 口徑 18.3cm로 된 납작한 형태이고 표면장식은 없다. 金銅方盒(4.6cm×4.3cm, 높이 12cm)은 속에 향을 담았고 상하의 넓은 면에는 四天王像 2軀씩을, 좌우 양면에는 仁王像을 각각 선각한 다음 공간은 魚子文으로 채우고 아래 위의 모를 죽인 다음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銅鏡은 雙龍文鏡(徑 19.4cm), 有銘四龍文鏡(徑 11.9cm, 銘, 光流素月 質稟玄精 澄穴鑑水 照肇疑清 結固永固 瑩此心靈), 波文鐘(徑 11.4cm), 素文鐘(徑 11.5cm)의 4매인데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황색향낭(5.5cm×5.4cm)은 자주색 실로 수를 놓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엄구는 佛子들의 헌품임이 틀림없고 유물이 모두 정교한 제품이지만 사리를 담았던 병은 석탑의 장엄에 비하면 빈약한 편이다.

제5층 옥개석에는 銀製鍍金佛像 이외에 다른 유물은 없었다. 身高 6.2cm, 全高 9.7cm의 이 佛像是 仰蓮과 伏蓮이 접한 원형대좌 위에 직립하였는데 螺髮에 肉髻는 작은 편이고 尊容은 온화하나 눈두덩이 두툼게 표현되었다. 法衣는 通肩이고 앞의 衣文은 좌우에서 孤線이 반복되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였고 왼손은 수평으로 들어서 上掌하였는데 모두 엄지와 검지를 대고 있다. 光背는 擧身光이면서도 연주문으로 頭身兩光을 구분하고 주위에 火焰文이 양각되었다.

8) 無量寺五層石塔發見遺物(圖 1-8)-①~③

無量寺는 扶餘郡外山面萬壽里에 있다. 이 石塔의 舍利莊嚴具는 日政 때 이미 일부가 산일되었고,¹⁾ 1971년 8월 해체수리 때 3개처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²⁾ 특히 日政時 발견된 水晶製舍利壺·銅盒·銀盒은 호박제 뚜껑이 있는 水晶製舍利壺(높이 1.4cm, 배지름 1.6cm)가 扶餘博物館에 보관되어 있을 뿐 이들의 발견시기, 발견위치, 발견경위 등이 모두 불분명하다. 또 1971년 수리 때 5층탑신에서 水晶舍利瓶이 또 발견되어 日政時의 水晶製舍利壺가 과연 舍利壺였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1971년 수리 때는 초층탑신에서 金銅製三尊像이, 3층탑신에서 金銅菩薩坐像一軀가, 그리고 5층탑신에서도 일연의 舍利具가 발견되었다. 불상들은 도금이 약간 탈락된 부분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三尊像은 모두 좌상으로서 아미타佛을 본존으로 觀音·地藏 兩菩薩이 脇侍하였다. 本尊은(높이 33.5cm) 肉髻는 크고 螺髮이며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였다. 尊容은 크고 모가 낮으며 法衣는 通肩에 가슴 밑에 裙衣의 매듭이 보인다. 두 다리에는 깊고 넓은 陰線으로 衣文을 표시하고 무릎 밑에 넓게 衣端이 펼쳐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고 왼손은 앞을 향하여 수평으로 들고 上掌하여 각각 엄지와 검지를 대는 아미타佛의 手印을 취하였다. 觀音菩薩(높이 25.9cm)은 相好·天衣·裳衣의 매듭 등 本尊과 동일하나 머리에는 정면에 化佛이 있는 三山冠을 썼고 영락 등의 장신구가 있는데 영락은 두 무릎에까지 걸쳐있고 手印도 本尊과 같으나 손의 위치는 반대이다. 地藏菩薩(높이 26cm)은 相好·法衣·장신구 등 觀音菩薩像과 동일하나 手印은 本尊과 같고 머리에 두건을 쓴 被帽地藏菩薩이다. 이들 三像은, 갑석으로 탑신 내부 중간까지 채운 뒤 그 위에 안치하였는데 아미타상은 정남향하고 지장보살은 本尊 앞에서 남향하고 관음보살은 역시 本尊 앞에서 북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배치가 원형인지는 불분명하다.

三層塔身에서 발견된 金銅菩薩坐像(높이 35.2cm)은 寶冠은 없으나 髮髻가 높이 솟고 相好는 초층의 三尊像과 유사하다. 法衣는 두 어깨에 걸쳐있고, 가슴 밑에 裳衣의 매듭이 크게 표현되었다. 목에는 목걸이가 있어 3조의 垂飾이 있음은 초층의 양 보살상과 같은 형식이다. 두 손은 결실되었다.

5층탑신의 원형 사리공에서는 舍利와 그 부대물이 발견되었는데 원형 석제 받침을 갖춘 靑銅外盒(부식 많음) 속에 靑銅內盒이 있었고 그 안에는 水晶小瓶(상반부 완과)·陀羅尼經·紫檀木·粉香 등이 들어있었으며 舍利는 水晶병안에 있었다.

이상 2차에 걸쳐 발견된 유물은 그 제작연대가 거의 동일하여 석탑 창건당시의 유물로 보아도 무방하며 실연대는 초층과 3층의 불상양식으로 보아 13세기말경으로 추정된다.

1) 日政時의 總督府博物館 陳列品圖鑑第14輯에는 無量寺發見品이라고 하는 水晶舍利小壺 1, 靑銅製龕 1, 銀製龕 2이 실려 있다.

2) 1971년의 수리에 관해서는 洪思俊의 「無量寺五層石塔의 解體와 修理」『考古美術』117, 1973, 3)의 報文이 있으나 舍利具에 관하여는 報文內容이 분명하지 않다.

9) 金山寺五層石塔發見遺物(圖 1-9)-①~⑨

金山寺五層石塔은 1971년 11월에 해체 보수하여 탑 안에서 일련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이 全北知事로부터 文公部長官에게 보고 되었으며 이 유물들은 東國大學校博物館에 이관되었는데 발견당시에 보고된 내용과 현재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보고된 내용은 重創記를 비롯하여 金銅觀世音菩薩像 3軀(높이 30cm, 15cm, 15cm), 金銅毘盧舍那佛立像 1軀(높이 15cm), 金銅觀音立像 1軀(높이 12cm), 金銅金剛力士 1軀(높이 5cm), 金銅地藏菩薩像 1軀(높이 7cm), 靑銅五層塔 1基(높이 7cm), 葉錢(조선통보) 7葉, 銅製舍利盒(水晶구슬, 호박자기 1組 등) 3點 등 金銅佛 7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³⁾ 현재 동국대학교박물관에는 金銅佛 6軀와 白玉製 童子像 1軀가 있어서 佛像의 尊名이나 크기가 서로 다르다.

金銅菩薩坐像(높이 29.9cm, 膝幅 14.3cm), 머리에는 큰 관을 썼는데 측면과 후면에서는 머리칼이 線刻되었다. 얼굴은 관보다 작고 목은 발달. 法衣가 두 어깨에 걸쳐있고 가는 天衣자락이 오른 팔에 걸쳐있다. 목에 짧은 목걸이가 보이며 오른 손은 무릎 위에서 上掌하였고 왼손은 伽趺坐한 오른 발 위에 얹고 무엇인가 들었던듯 하나 지금은 없다. 臺座는 仰伏蓮이 연결되고 아래 위에 連珠文이 있고 전체 모양은 前面이 底邊인 삼각형이다.

金銅觀音菩薩坐像(높이 12.2cm, 膝幅 8.3cm), 머리에는 높은 관을 쓰고 머리카락이 두 어깨와 등 되에까지 느러져 있다. 얼굴은 둥근데 눈은 길고 입은 작으며 의례적으로 白毫가 있다. 두 어깨에는 두꺼운 法衣를 걸쳤고 가슴 밑에 裳衣의 매듭이 있고 끈이 여러 갈래로 풀어져서 늘어져 있다. 가슴에는 목거리가 보이며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었고 왼손으로는 무릎 위에서 淨瓶을 받들었다. 臺座는 仰伏蓮이 연결되었고 상단과 하단에는 연주문을 돌렸는데 전체 형태는 前面을 저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金銅藥師如來坐像(높이 8.2cm, 膝幅 6.8cm), 손상이 심하여 세부를 알수 없으나 왼손에 寶珠를 들고 있어서 藥師如來로 추정된다. 머리 위는 평평한데 螺髮이 표시된 돌기가 있어 肉髻로 볼 수 있다. 法衣는 通肩이고 가슴 앞에 掩液衣가 보인다. 두 무릎은 매우 넓어서 身高와의 균형을 잃었다. 오른손은 施無畏印 같이 약간 들어서 外掌하였고 臺座는 仰伏蓮이 연결된 삼각형인데 매우 얇다.

金銅如來立像(높이 14cm), 머리는 螺髮이고 相好는 둥근데 눈은 길고 입은 작다. 法衣는 通肩이고 두 다리사이에 V자형 衣文이 3단 표현되었고 배후는 거의 조각이 없으나 발목 쪽에 法衣 하단의 표시가 있을 뿐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 오른 손으로 왼 손가락 전부를 위에서 잡은 모습인 智拳印 같이 보이나 격식에 맞지 않는다. 臺座는 얇은 상대와 하대 사이에 높은 중대로 된 8각형이다.

金銅菩薩立像(높이 12.8cm), 머리에는 髮髻가 높게 표현되었고, 곳곳에 구슬모양이 있어서 특이하다. 相好는 둥근데 눈·코·입이 모두 작다. 두 어깨에 天衣를 걸쳤고 가슴 밑에 裳衣의 띠가 보이나 衣文은 소략하다. 배면에는 거의 刻線이 없고 원통형을 이루었다. 두 팔은 길고 작은

3) 黃壽永, 「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考古美術』 129. 130號, 韓國美術史學會, 1987.

손을 아랫배에 대어 마주 잡았고 臺座는 無文의 8각형이다.

金銅地藏菩薩立像(높이 12cm), 머리는 剃髮에 약간 앞으로 숙였고 작은 코와 입에서 靜思의 분위기가 감돈다. 法衣는 通肩이고 가슴 밑에 裳衣의 띠가 보인다. 背面에는 거의 刻線이 없고 筒形이다. 오른손은 施無畏印 같으나 손가락을 모두 구부렸고 왼손은 下腹部에서 上掌하였다. 臺座는 無文의 8각형이다.

이상의 佛像 6軀의 공통점은 坐像 3구는 모두 저면 삼각형이고 仰伏蓮을 연결한 대좌를 갖추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라마불상의 대좌형식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또 立像 3구는 모두 相好가 둥글고 눈·코·입이 작은 점 고려시대 불상의 특색이 여실하며 대좌는 얇은 상대와 하대 사이에 높은 중대가 있는 無文 8각형인 점이 공통된다. 또 坐像 立像 모두 如來 1軀에 菩薩 2軀씩이어서 脇侍하는 菩薩이 격식에 맞지 않지만 三尊으로 갖추어 施納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외에 金銅金剛力士라고 報告한 像은 실은 玉製의 童子坐像(높이 4.5cm)으로서 蓮座에서 파생한 연줄기가 두 가닥 앞과 뒤를 돌아 어깨까지 연장되었고 한 손에 잡은 연줄기는 다시 연장되어 꽃봉우리가 달려 있다.

靑銅塔(높이 7.6cm, 下臺 3.5cm×3.6cm)은 3단의 얇은 기단 위에 塔身과 屋蓋의 폭이 모두 채감되는 형식이다. 표면장식 없이 옥개 위에 1단의 탑신 받침이 있을 뿐이고 현재 6층 옥개 위에 탑신 일부까지가 남아 있어서 원래는 7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銅製圓筒器(높이 15.2cm, 上徑 9.8cm), 그 형태나 표면 문양이 牙山郡新昌面邑內里 石塔에서 출토된 圓筒器와 동형이다. 두 개의 원통기를 포갠고 위에 뚜껑을 덮었다. 표면에는 가는 음각형 선이 빈틈없이 施文되었다.

이상에서 관찰한 유물들은 불상은 물론 銅塔이나 圓筒器도 樣式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으로 보이며 本塔 建立과 동시작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0) 新元寺五層石塔發見遺物〈圖 1-10〉-①~③

新元寺소재 五層石塔(4층이상 없음)을 수리할 때 初層塔身 舍利孔 안에서 舍利外壺, 舍利瓶, 銅錢 3葉이 발견되었다.

舍利壺는 어깨가 넓고 굽은 밑이 넓은 黃綠釉의 자기질로서 身部의 유약은 거의 벗겨졌고 뚜껑 내부에만 남아있다. 어깨 위에 兩耳가 달리고 한 쪽에 작은 注口가 있으나 모두 파손되었다. 器形 釉調 등으로 보아 宋代 자기로 보인다(전체 높이 14cm, 몸 높이 13.3cm, 뚜껑 높이 3.4cm).

舍利瓶(높이 7.8cm)은 暗綠色調의 불투명 유리질이고 바닥은 안으로 우그러들었다. 긴 목의 중간부위에 굽은 줄이 쳐있고 그 줄은 가늘어지면서 나선형으로 밑으로 연속되어서 일종의 장식 효과를 내고 있다. 마개는 없다.

銅錢은 開元通寶, 咸平元寶, 皇宋通寶(徑 各 2.5cm)의 3종이다. 開元은 唐玄宗(713~741)때의 年號이고 咸平은 北宋 眞宗(998~1003) 때의 年號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銅錢이 동시에 수장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탑의 舍利莊嚴具는 매우 간결하여 조사보고에서는 「過去에 이 塔을 修理할 때 元來의 舍利

具는 훼손되었던 것으로 추찰된다。」⁴⁾라고 하였으나 「過去」가 언제인지 또 그렇게 추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11) 聖風寺址五層石塔發見遺物(圖 1-11)-①,②)

靈巖郡 靈巖邑에 소재한 이 石塔은 半破된 상태로 있던 것을⁵⁾ 1986년 6월에 결실된 부재를 보충하면서 復原하였는데 이 때 初層塔身 상면 舍利孔에서 誌石과 함께 舍利外盒으로 보이는 靑磁器가 발견되었으나 그 밖의 장엄구는 없었다고 한다.⁶⁾

誌石은 15.8cm×12.8cm 두께 0.8cm의 운모가 많이 섞인 점판암질의 板石 일면에 7행에 걸쳐 56자가 해서체로 음각되었다. 발견 당시 6편으로 파손되었으나 복원이 가능하여 原形을 알 수 있었고 誌文도 모두 判讀할 수 있다. 誌文은 다음과 같다.

菩薩戒弟子高麗國靈
岩顯戶長朴文英特爲
邦家鼎盛朝野益安
敬造込五層石塔安
置聖風大寺永充
供養也
統和二十七年 己酉 六月 日記

靑磁盒은 뚜껑을 동반하였는데 발견 당시 모두 대파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盒身(높이 6.4cm, 口外徑 11.8cm, 底外徑 5.4cm)에는 높이 1.7cm의 높고 밑이 약간 外反된 두께 약 0.7cm의 굽이 달렸고 뚜껑으로 사용하였던 것(높이 3.8cm, 口外徑 13cm, 底外徑 6.5cm)에는 높이 0.5cm의 얇은 굽(손잡이로 볼 수도 있다)과 그 주위로 폭 0.7cm에 걸쳐서 받침형의 턱이 붙어 있다. 이 두 개의 그릇은 모두 무문이고 靑磁釉가 입혀져있는데 釉調는 맑은 편은 못된다. 두 그릇은 따로따로 구운듯 각각 4곳에 耐火土 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誌石에 기록된 「流和二十七年己酉」의 年記는 高麗 穆宗 12년(1009)에 해당하며 이 年代는 石塔의 創建을 대변함은 물론 靑磁器의 제작연대와도 합치되므로 이 舍利具를 창건당시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유물이 자연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은 이유와 사리용기가 없었던 점이 석연하지 않으나 靑磁盒을 사리용기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원형이 攪亂된 후에 수습된 예

이 경우는 석탑의 도괴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장엄구가 일찌기 교란되었고 그 후 보수 또는 사후 수습을 통하여 유물이 발견된 예이다. 1群의 예에도 일부가 교란된 후에 수습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장엄구의 핵심을 이루는 유물이 남아있었고 2群의 경우는 원형이 대부분 산일

4) 金永培, 「新元寺石塔舍利具」, 『百濟文化』 第10號, 公州師範大學, 1977
5) 鄭永鎬, 「靈巖의 石塔二基」, 『考古美術』 第5卷 第11號, 考古美術同人會, 1964.
6) 成春慶, 「靈巖聖風寺址五層石塔」, 『黃壽永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88.

되어 잔여유물만으로는 장치당시의 장엄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가치면에서는 1群에 미치지 못하지만 잔여유물 중에는 1群에서 보이던 유물이 역시 여기서도 보이고 있어서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의 경향을 짐작하는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1群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하 2群에 속하는 예를 보기로 한다.

1) 南溪院七層石塔發見遺物

이 石塔은 日政時부터 「開國寺塔」이라고 불려왔으나 「南溪院塔」으로 고증되었고⁷⁾ 원위치인 開城市 德岩洞에서 1915년 景福宮으로 이건할 때 塔身에서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全7卷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⁸⁾ 이 석탑의 舍利具는 寫經 이외에 어떠한 유물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寫經도 현재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實査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 金剛山南普賢寺三層石塔發見遺物

江原道淮陽郡 소재 南普賢寺三層石塔에서 1933년 小木塔 4基가 발견되었다. 이 木塔들은 初層 塔身에서 발견되었으며 3層塔 3基(높이 4.3cm, 5.5cm, 6.6cm)와 7層塔 1基(높이 7.1cm)인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세부양식이 분명하다. 3層塔 중 작은 2基는 下基壇이 생략되었으나 露盤과 覆鉢을 갖추었고 큰 1基는 下基壇과 相輪部까지 完存하다. 7層塔은 기단의 표현이 소략하며 탑신의 높이가 알고 옥개 처마는 두껍다. 상륜부를 갖추었으나 표현은 역시 소략하다. 이 유물들은 長安寺 소장으로 되어있다.⁹⁾

3) 扶餘林川面 傳普光寺址石塔發見遺物(圖 2-3)－①~⑥

扶餘郡 林川面 加神里 普光寺址라고 推定되는 곳에서 舍利具가 수습되어 扶餘博物館에 수장된 일이 있는데 이 遺物은 1939년 6월 14일 扶餘에 거주하는 金政煥이라는 자에게서 구입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래의 藏置狀態 내지는 출토경위는 물론 이것이 藏置遺物의 전부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이들 遺物이 舍利具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舍利莊嚴具로 다루기로 하였다.

金銅八角龕(高 6.22cm)은 아직 금색이 잘 남아있고 얇은 8각 받침 위에 8각 身部가 놓였는데 약간 배가 불리며 4면에는 四天王像을, 다른 4면에는 상하에 돌기가 있는 타원형 眼象을 교대로 조각하였다. 屋蓋는 밑에 얇은 3단의 받침이 있으며 落水面에는 8조의 마루가 내려왔는데 전체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었다. 정상 相輪部는 절단되었다.

銀製八角臺座(高 2.5cm, 上幅 3cm, 下幅 3.5cm)는 밑에 8개의 如意頭文으로 된 다리가 있으나 그 사이에 眼象의 표현은 없다. 그 위에는 伏蓮 14葉이 있고 얇은 中基 위에 重葉仰蓮과 八角蓮實部가 있다. 이 臺座 상면에 불상을 안치하였던 흔적은 없으나 佛臺座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아마도 護身佛 같은 불상을 안치하였던 듯 하다.

7) 高裕燮, 「所謂開國寺塔에 對하여」, 『韓國美術史及美學論巧所收』, 通文館, 1972.

8) 石塔의 建立과 寫經이 年代에 關하여는 高裕燮 前掲書 142, 143頁 參照.

9) 金禧庚, 「高麗塔의 舍利藏置에 對하여」, 黃壽永編,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木製舍利器(高 4.1cm)는 갈색을 띠었고 상하 6각형이다. 6개의 다리와 상·중·하로 구분되는 무문 대좌 위에 라마탑形의 塔身을 올리고 그 위에 추녀의 반전이 심한 3층의 6각 屋蓋를 얹었다. 정상에는 仰蓮이 받치는 큰 寶珠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佛臺座 위에 라마탑形의 塔身을 올린 일종의 혼용형식으로서 舍利器였을 가능성이 크다.

玉類는 유리·비취·호박 등으로 된 대소 각양의 一括品이다.

璧(內徑 3cm, 外徑 8.6cm)은 약 1/3만 남은 破片이다. 表裏에는 각각 형식을 달리하는 파도문이 조각되었다.

4) 廣州春宮里三層石塔發見遺物〈圖 2-4〉—①, ②〉

이 석탑은 1965년 12월 이미 교란된 후에 보수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잔여물이 수습되었다. 즉 제1塔身 중앙에 설치한 원형 2단 사리공에는 토사가 충만하여 있었는데 그 토사에 섞여 金銅小盒(3×6cm, 높이 0.9cm), 銀器片이 남아있었고 하층기단 토사 속에 납석제小塔 29기, 銅造如來立像(手足缺, 현높이 7cm), 銅造人物像(手缺, 높이 2.7cm), 납석제불상(頭手缺, 높이 9.5cm) 등이 있었으나 그 중 주위를 끄는 것은 小塔들이었다.

불상은 모두 손상이 매우 심해서 세부가 분명하지 않다. 사진의 큰 像(높이 7cm)은 수족이 결실되었고 尊容도 분명하지 않은데 螺髮의 肉髻는 크다. 목은 받고 손은 施無畏·與願의 通印인 듯하나 불분명하고 衣文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소형 인물상(높이 2.7cm) 또한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듯 할 뿐 세부를 알 수 없고 납석제 불상도 손상이 많다.

小塔은 29基였으나 이것이 원래의 수가 아님은 물론이고 산일된 잔여물이다. 層數는 3층, 5층, 6층, 7층, 8층의 5종이었으며 높이는 3.5cm에서 9cm에 이르고 저면의 크기는 1cm~6cm×1.5cm~8cm의 각양이고 평면은 모두 방형이다. 제작은 매우 거칠어서 저면이 고르지 않고 특히 저면에는 구멍이 없어 羅代이래 구멍을 내고 經文을 넣는 通式이 무시되었다.¹⁰⁾

5) 公州郡新豊面東院里三層石塔發見遺物〈圖 2-5〉—①~⑧〉

이 石塔은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국립공주박물관으로 移置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移轉을 포기하고 原位置에서 보수하기로 하였으나 감독자의 임회없이 1962년 12월 공사인부들에 의하여 채취되었던 것이다. 이 塔에는 初層塔身에 舍利孔이 있었고 基礎部(이 「基礎部」라는 말이 石塔의 어느 위치를 지칭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의 土石을 파내는데서 나왔다고 하는 몇 개의 유물이 있었다.

初層塔身에 설치한 圓孔이 主舍利孔이지만 이곳에 納藏하였던 장엄구는 일찌기 없어졌고 조사 시에는 徑 1.6cm와 0.7cm의 水晶小珠 2개와 舍利 6粒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¹¹⁾

이에 비하여 塔底部에서는 납석제小塔·납석제水煙片·납석제四面石刻像·납석제獅子片 등이

10) 金禧庚, 「春宮里兩塔內發見遺物과 補修概要」, 『考古美術』 第7卷 第3號, 考古美術同人會, 1966.

11) 金永培, 「公州新豊面三層內發見遺物」, 『考古美術』 第4卷 第8號, 考古美術同人會, 1963. 8.

발견되었다고 하나 小塔 이외의 유물이 과연 장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小塔들은 방형 6基(높이 10.3cm, 9.8cm, 8.3cm, 7.3cm, 6.5cm, 4.3cm), 圓形 1基(높이 9.9cm) 등 7기이다. 이들은 대체로 粗製일 뿐 아니라 어느 것이나 많은 손상을 입어서 층수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모두 납석제라는 점이 주목된다.

납석제四面石刻像은 높이 11cm의 橢圓錐形 4면에 각각 1像씩을 조각하였는데 4면중 상대하는 양면에 각각 좌상과 입상이 조각되었다. 像의 높이는 좌상이 각각 8.5cm와 5cm이며 입상은 7cm와 7.5cm이다. 상태는 불량하고 조각도 소홀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으나 불교관계의 유물로 보인다. 좌상은 結伽趺하였고 입상은 瘦身에 손과 발을 벌려서 무용이라도 하는 듯한 자세이다. 跌

또 하나의 조각상은(현고 7.2cm) 납석제로 머리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獅子像」으로 추정하여 왔으나¹²⁾ 下部의 자세 특히 側面觀으로 해서 倚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팔은 느러뜨려서 하복부에 대었고 가슴에 음각 衣紋線 2조가 보인다. 두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내밀렸는데 이 부위는 右側面에서 보면 倚像으로 인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배면은 무문이며 上端 가까이에 턱이 1단 있다.

6) 扶餘場岩面北鼻里탑골石塔發見遺物(圖 2-6)-①

1964년 4월 이곳 寺址에 殘存하던 方形 石塔 屋蓋石 2개를 扶餘博物館에 移置한 일이 있었는데 同年 8월 15일에 이르러 塔址 지하에서 金銅如來立像 1구가 발견되었다. 이 佛像이 舍利孔에 納置되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 佛像의 出現을 알린 報文에도 「同塔址 地下」라고만 했을 뿐 그 이상의 자세한 언급이 없으나¹³⁾ 石塔과 佛像의 연관은 舍利莊嚴 이외에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金銅佛(高 14.5cm)은 身部 좌측에 도금이 약간 남아있을 뿐 전면이 화상으로 氣泡로 덮혀 있다. 배면은 空洞이고 목 뒤와 정강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光背 꼭지가 있다. 尊容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윤곽으로 보아 큰 편이고 素髮에 肉髻는 작다. 法衣는 通肩이고 두 손은 與願 施無畏의 通印인데 두 발과 함께 유난히 작다. 衣文 또한 불분명하고 화상으로 인함인지 左足이 缺失되었다. 남은 右足 밑에 작은 축이 있어서 臺座에 꽃게 되어 있으나 臺座는 없다.

7) 靑陽西亭里九層石塔發見遺物

이 石塔은 1965년 11월에 해체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보다 앞서 日政時에 初層塔身에 舍利容器로 보이는 遺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수공사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¹⁴⁾ 금번 조사에서는 上層 基壇甲石의 상면 중앙부에 靑銅破片(大小 약 20편)만이 남아 있

12) 金永培의 보고내용(考古美術 第4卷 第8號)을 비롯하여 李殷昌의 「東院里石塔內發見石製小塔」, 『史學研究』 第17號, 韓國史學會, 1964. 5, 金禧庚의 「高麗塔의 舍利藏置에 對하여」, 黃壽永編,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등에서 모두 獅子像이라고 하였다.

13) 『考古美術』, 第5卷 第9號 뉴스 「石塔材와 銅佛1軀收拾」, 考古美術同人會, 1966. 9.

14) 이 石塔을 조사한 谷井濟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令稍傾斜シ初層塔身ニ異納メラレン舍利容器ト考ヘラルモノ間隙ヨリ之キ 窺ヒ得ベシ」,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었다고 하며 破片으로 미루어 靑銅圓筒形器가 장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형태는 忠南 牙山石塔發見의 圓筒容器와 同形의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이와 유사한 圓筒容器는 金山寺五層石塔에서도 발견된 일이 있다.

8) 大興寺北彌勒庵石塔發見遺物(圖 2-8)-①

海南郡 소재 大興寺北彌勒庵에는 2基의 石塔이 있는바 그 중 1基는 完存하여 寶物 301호로 지정되었고 다른 1基는 3層塔身까지만 남아 있다. 이 塔은 자연암반 위에 上層基壇을 結構한 異型石塔인데 1967년 1월 이 異型石塔을 해체수리하였으나 塔身部에서의 유물의 有無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도 찾을 수 없고 다만 上層基壇 내부의 자연암반 위에서 銅製如來坐像(높이 11.8cm, 무릎폭 7.5cm) 1軀가 발견되었다.

頭髮은 螺髮인데 정수리에는 傘蓋 같은 것이 있어서 특이하다. 코와 입은 작으나 귀는 크고 눈 두덩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목은 성큼하고 法衣는 좁은 어깨(폭 4.3cm)에 通肩으로 걸쳤고 가슴 밑에 裙衣가 보이나 매듭의 표현은 없는 등 衣文은 매우 소략둔중하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었고 왼손은 밑으로 내려서 모두 손가락을 구부린 모습이 아미타여래의 九品印으로 볼 수 있다. 臺座는 없으나 佛身 하단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래는 대좌를 갖추었던 듯 하다.

9) 公州水源寺址石塔發見遺物(圖 2-9)-①

1967년 寺域內 지하에 石塔材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주변을 발굴조사한 결과 塔址가 나타났고 황토와 모래로 다진 基壇 기초부에서 石製小塔 3, 銅製風鐸 1, 靑銅塔片 등이 발견되어 이들이 舍利莊嚴具였으리라고 추정되었다.¹⁶⁾

小塔은 五層塔 2基(높이 각 8.2cm)와 3層塔 1基(높이 5.5cm)로서 모두 방형이며 밑에 圓孔이 있다. 표면에 문양은 없으며 그 중 五層塔 1基는 추녀가 크게 反轉되어 고려시대 石塔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銅鐸은(높이 4.5cm) 扁圓錐形의 通式이며 표면장식은 없고 다소의 손상이 있다.

銅塔은 屋蓋部, 塔身部, 난간 등을 식별할 수 있을 뿐 모두 작은 殘片으로 파손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 없고 그 중 仁王像 같이 보이는 像 2편이 있는데 그 중 1편은 옆에 계단의 잔편이 붙어 있다.

이상과 같은 출토상태로 보아 塔의 어느 部位에 어떻게 장치되었는가가 불분명하고 이들 유물이 전부인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水源寺는 三國遺事에도 寺名을 남기고 있는 백제시대 이래의 古刹인 점으로 보아 이곳에 백제시대의 塔址가 있을 수도 있으나 遺物이 발견된 塔址가 寺域의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報文에 의하면 後代에 건립된 塔일 가능성이 있는데 발견된 일연의 遺物 또는 寺址에 남아있는 우물의 석축부재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石佛頭, 塔址일대에 산재해 있었다는 土像片 등이 모두 고려시대의 作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건립한 석탑의 유구로

15) 黃壽永, 「靑陽定山九層石塔의 舍利孔」 『考古美術』 第6卷 第12號, 考古美術同人會, 1965, 12.

16) 金永培, 「水源寺塔址調査」, 『百濟文化』 11號, 公州師範大學大學, 1978.

추측된다.

10) 槐山水若里五層石塔發見遺物(圖 2-10)-①

1967년 6월 경주박물관장朴日薰에 의하여忠北槐山郡沙梨面水岩里 소재鳳鶴寺址로 전칭되어 오는寺址에 있는 도괴된五層석탑(복원 높이 약 5m)이 조사되었고 이 석탑 제2층屋蓋石의圓形舍利孔(徑 약 11cm)에서 발견되었다는方形龕과小像 3軀 및紙本墨書의記文이 수습되었다.¹⁷⁾

方形龕(3.4cm×4.1cm, 깊이 1.3cm)은 앞이 터진 상자를 세운 형태일 뿐 문양장식이 없는粗製이나 밑에는數葉仰蓮辨을銅板으로 오려서 세운 별도의 받침이 있고 앞에는노끈으로 고정시키는別造의 가리개를 달았다.

龕內的 3像은 불상인듯 하나如來와脇侍菩薩로서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큰 중앙의像은(높이 2.4cm) 머리 위에肉髻가 높이 솟고 두 팔은 벌려서坐勢에서 세운듯이 보이는 왼쪽 무릎 위에 엮고 오른손은伽趺坐인듯이 보이는 오른쪽 무릎 위에 엮었으나 두 손 모두手印은 분명하지 않다.相好는刻線이 분명하지 않고衣文도 두팔에 음각선이 몇 줄 있고 가슴 밑으로 두 줄 음각 곡선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몸 밑에는연화인듯한 받침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좌우의 상(높이 각 2.2cm)은 거의 같은 자세인데 모두 한편 다리를 들어서 꼬고 있는 입상이다. 모두 머리 위에는肉髻가 크고 두 손은 앞에 모아 무엇인가 들고 있는듯 하다.相好의 조각은 분간할 수 없으며衣文도裳衣인듯한 종선이 몇 줄 하반신에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이龕은 매우 간략하여佛龕의 일반적인 형식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고佛像 또한 통식적인 양식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이것이三尊을 봉안한佛龕의 뜻으로 제작한 것임은 틀림없을 것 같다.

紙片은 크기가 4.1×2.2×1.5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크기나記文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3. 발견지·발견경위 등이 불명인 예

제3群으로 분류한 장엄구는 이 장엄구를 장치하였던原所在塔 또는 발견경위 내지는伴出遺物 등이 불명이고 대부분이 출토지의傳稱조차도 불분명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舍利器로 볼 수 있고 그 중에는 형식상 다소의 참고가 되는 것들이 있기에 별도로 분류하여 참고하기로 하였다.

1) 李成柱發願舍利器(圖 3-1)-①~④

이舍利器는 1932년江原道淮陽郡場陽面長淵里의金剛山月出峰에서石函 속에 장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舍利器 一括은 유리製舍利容器를內藏한銀製鍍金塔形舍利器와 이舍利

17) 『考古美術』第8卷 第7號 뉴스, 考古美術同人會, 1967, 7.

『美術資料』第12號 뉴스, 國立博物館, 1968, 6.

기를 外護하는 八角龕으로 구성되었고 원통형 銘文板, 靑銅鉢 白磁鉢 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銀製鍍金 塔形舍利外器(높이 15.5cm)는 器臺·身部·相輪으로 구성되었다. 器臺는 원형인데 밑에 8개의 발이 있되 발과 발 사이는 眼象形을 이루었고 그 위에 체감되는 2단의 伏蓮을 돌렸는데 위는 單辨이고 아래는 複辨이며 꽃잎에는 가는 縱線이 밀집되어 있다. 이 위의 身部는 위가 넓고 밑이 좁은 卵形인데 표면에는 4면에 합장한 如來立像 1구씩이 조각되고 그 사이에는 고려시대 청자매병 어깨의 장식문양에서 볼 수 있는 袈紗文形의 영락장식이 늘어졌는데 이 袈紗文形 장식은 身部 어깨에 조각된, 器臺의 單辨仰蓮과 동일한 양식의 伏蓮에서부터 시작되었다. 相輪은 위가 체감되는 4개의 寶輪과 약식화된 十字火焰文寶珠로 되었는데 身部에서 분리되어 뚜껑을 겸하였다. 이 外器의 형태는 朴鍾和藏 至大三年銘舍利器의 형태와 매우 근사하다.

이 外器 안에는 銀板을 두들겨 만든 2중의 연화좌를 마련하여 유리제 圓筒形舍利容器를 놓았고 이 容器를 둘러싸듯 圓筒形으로 둥글게 銘文板을 돌렸는데 여기 「奮忠定難匡復變理佐命功臣壁上三韓三重天匡守門下侍中李成桂三韓國大夫人康氏勿其氏」라는 銘文이 刻字되어 있다.

八角龕(높이 19.8cm)은 舍利塔에서와 같은 양식의 仰蓮과 伏蓮을 연결시킨 받침 위에 8각 身部를 받게 되어 있다. 身部 하단에는 唐草文帶를 돌리고 각 隅角에는 柱形을 표시한 다음 각 면에는 舍利塔에서와 같은 양식의 頭光을 가추고 합장한 如來立像 1구씩을 음각하였고 위에는 垂飾이 드리워 있다. 뚜껑에는 隅棟과 기와골이 2단으로 표현되고 정상에 얇은 연꽃이 있다.

2) 至大三年銘舍利具(圖 3-2)-①, ②

이 유품은 日政時 부산의 日人이 라마塔系의 舍利莊嚴具를 입수한 일이 있었다고 하나¹⁸⁾ 朴鍾和氏가 入手한 舍利器가 과연 이 舍利器인지의 여부에 대한 明言은 없지만 釜山의 日人이 入手하였다는 것이나 이 舍利器가 모두 라마탑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은 공통된다. 이 사리탑은 연화대 위에 塔身을 얹고 塔身 위에는 높은 相輪이 있고 이 사리탑 안에 사리기를 안치하였다.

銀製の 舍利塔은 平面 圓形을 기본으로 삼았고 蓮花基臺 밑에는 8개의 다리가 있되 다리와 다리 사이는 眼象形으로 처리한 다음 그 위에 伏蓮이 양각되었고 그 위에 銀板으로 오려 만든 單辨 仰蓮을 3중으로 부착시켰다. 塔身은 배가 부른 長卵形인데 표면에 螺髮通肩의 合掌立佛 4구와 그 사이에 영락이 음각되었다. 相輪에는 체감되는 九輪이 있고 정상에는 蓮蕾形 寶珠를 얹었다. 이 상과 같은 외형은 金剛山 月出峰출토 李成桂發願 舍利器와 근사한 점은 주목된다(높이 24.5cm).

이 舍利塔 塔身 안에는 八角塔形의 舍利器와 圓筒形 外護器가 있는데 外護器는 높이 4.2cm, 徑 4cm의 銅製이고 蓮蓋形 꼭지가 붙은 뚜껑을 따로 만들었다.

至大三年「五月」造人「李奇」施主「宋以道」元永「志心」線庵「居善」

이라는 銘文이 음각되었다. 「至大三年」은 고려 忠宣王 2년(1310)이다.

18) 黃壽永, 「高麗在銘舍利塔 後記」, 『考古美術』第3卷, 第2·3號, 考古美術同人會, 1962.

이 外護器 안에는 銀製八角圓堂形의 舍利容器(높이 3.5cm)가 들어있다. 8각탑신은 8개의 다리가 있는 대좌 위에 얹게 되었고 8각屋蓋에는 隅棟과 기와골이 2단으로 표현되어 고려시대 舍利具의 他例에서도 볼 수 있다.

3) 靑瓷壺內藏 金銅舍利器(圖 3-3)-①,②)

이 일련의 유물은 1958년 江原道所在의 一石塔에서 발견되어 현지에서 보관되어 오다가¹⁹⁾ 1960년 서울 金東鉉氏의 所有가 되었으나 지금은 湖巖美術館에 귀속된 것으로서 靑磁壺 안에 金銅塔을 內藏하였고 그 안에는 다시 水晶製 舍利容器가 안치되어 있다.

金銅舍利器(높이 9cm, 底徑 5cm)는 基壇·塔身·相輪으로 구성된 평면 원형으로서 一鑄된 유품이다. 기단에는 상하에 連珠文을 돌렸고 그 사이에는 下端 連珠文에 붙여서 굵은 圓文 3개와 1개를 등간격 교대로 올렸고 그 위에는 仰蓮과 伏蓮을 연접하여 양각 周廻시켰다. 그 위에는 수조의 양각횡선을 돌린 위에 圓連珠文을 한 줄 돌려서 塔身 받침 같은 외형을 만들었다. 塔身은 상하를 각각 수평으로 자른 卵形인데 위가 약간 넓어서 扁小한 라마탑형이다. 표면에는 4구에 걸쳐서 圓文과 連珠文으로 垂飾을 장식하였다. 相輪部에는 먼저 소위 斗出星形이라고 하는 라마탑 기단의 형식인 4방斗出의 얇은 板形이 놓이고 그 위에 同心橫條를 돌린 圓錐形이 놓인 다음 隅角마다 귀꽃이 붙은 6각寶蓋와 2단의 寶珠가 차례로 놓여 있다.

舍利容器(높이 5.2cm)는 木造六角蓮花臺와 水晶製 蓋로 구성되었는데 연화대는 6개의 발과 발 사이는 眼象形을 만들고 좁은 中臺와 仰蓮이 있는 上臺로 구성하였는데 上臺 측면에 連珠文을 돌렸음은 舍利塔과 양식을 같이한다. 연화대에는 전면에 도금하였고 상면은 융기된 위에 朱漆하였다. 水晶蓋는 內空의 6각형이고 상단은 錐形을 이루었다.

靑磁壺(높이 16cm, 굽徑 6.4cm, 口徑 7.2cm, 蓋徑 7.5cm)는 원통형이고 작은 굽이 있으며 몸 하단에는 如意頭文을, 상단에는 雷文과 圓文을 각각 白象嵌하였고 胴部에는 위의 連珠文에 연결시켜 흑백 圓文과 垂飾으로 매병에서 자주 보는 袂沙文 4조를 늘어뜨려서 4구로 나눈 다음 공간에는 각각 花形과 圓文이 흑백으로 상감되었다. 직각으로 꺾인 어깨에 해당하는 입 주위에는 국화문이 2조의 백선 사이에 흑백으로 연속 상감되었고 뚜껑에는 방사선문이 백상감되었다. 釉調는 회청색으로 뛰어난 편은 아니다.

이 舍利具에서 도자기를 外護器로 사용한 점은 고려시대 舍利外護器 형식으로는 異例이지만 水鍾寺浮屠, 金剛山月出峰 등지에서 발견된 舍利器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이고 舍利塔의 탑신 형태나 표면의 連珠와 圓을 이용한 장식수법 등이 라마탑 내지는 라마불상의 영락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또한 주목된다.

4) 金銅塔形舍利器(圖 3-4)-①,②)

開城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만 전할 뿐 정확한 출토지점은 물론, 이것이 塔에서 발견되었는지의 여부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李王家美術館에서 1914년 4월 申松이라는 자에게서 산 것으로 되어

19) 黃壽永, 「金銅舍利塔과 靑瓷壺」, 『考古美術』 第3卷, 第1號, 考古美術同人會, 1962.

있다.

탑은(높이 7.6cm) 基壇, 塔身받침, 塔身, 寶蓋의 4개로 구성되었다. 기단은 상·중·하대가 연결해 있는데 상·하대는 원형이고 중대는 8각이다. 상·하대의 측면과 하대 상면의 공간에는 원형으로 턱을 세우고 그 안에 구슬을 감入하였는데 하대 상면의 구슬은 특히 크다. 감入한 구슬에는 색이 있어 매우 화사해 보이며 모두 40개인데 그 중 23개는 없어졌다. 塔身 받침은 仰蓮과 伏蓮이 연결된 원형이고 塔身은 扁球形의 石製이다. 원형 보개는 2단의 連珠와 寶珠로 되었고 하단의 연주에서 2조의 고리가 기단 밑까지 늘어져 있다.

탑과 함께 발견된 은합(높이 5.2cm, 徑 9.2cm)은 뚜껑을 갖추었고 표면장식은 없다.

탑은 그 외형이 3群 3)의 靑磁盒 안에 있었던 舍利器와 매우 유사하여 이 유물도 舍利器의 일종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으며 티벳 라마불교미술과의 친근성을 직감하게 한다.

5) 銅塔과 銀圈(圖 3-5)-①, ②)

開城부근에서 발견되었고 李王家美術館에서 1916년 日人 佐藤佐五郎을 통하여 구입하였다고만 있을 뿐 일체의 관계知見이 불분명하여 塔에서 발견되었다는 확증도 없다. 다만 이와 유사한 銅塔이 金山寺五層石塔에서도 발견된 일이 있어서 사리장엄구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銅塔(높이 14.5cm)은 방형의 3층인데 기단은 1매 동판으로 되었고 塔身은 屋蓋에 비하여 좁을 뿐 아니라 위로 갈수록 둔화된 점은 특이하다. 屋蓋는 추녀에 반전을 나타내었으나 오히려 다른 부위와의 조화를 잃은 결과가 되었다. 落水面에는 간략하게 기와골을 표시하였고 相輪部는 없으나 유리된 상태로 함께 발견된 유물 중에 밑에 仰蓮이 붙은 半球形 동조품이 있어서 그 일부일지도 모른다.

圓筒은 대소 2개인데(큰 것 높이 4cm) 큰 것은 은제이고 작은 것은 동제이다. 몸과 뚜껑이 따로이고 둥글고 긴 꼭지가 있으며 뚜껑밑이 鋸齒形으로 된 점은 특이하다.

6) 聞慶出土 舍利器(圖 3-6)-①, ②)

聞慶郡 鳳笙里출토라고만 기록되었을 뿐 그 외의 사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유물이다. 이 유물들은 일찌기 日本으로 유출되었다가 1966년 返還文化財로 국립박물관에 수장된 것으로²⁰⁾ 비록 발견경위가 불분명하다 하여도 一連의 器形으로 보아 사리구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물의 내용은 木製圓形받침, 靑磁碗, 靑磁접시, 木盒, 水晶壺, 玉類 등으로 水晶壺는 사리용기였을 것이며 이것을 木盒과 靑磁碗에 차례로 넣고 靑磁접시로 덮은 다음 木製圓盤(徑 18.8cm)으로 받쳤던 것이 아니었던가 추정된다.

靑磁碗(높이 7.8cm, 口徑 13cm)과 靑磁접시(높이 3.8cm, 口徑 16.7cm)는 기벽이 두껍고 釉調는 암갈 내지는 암록색을 띠었으며 碗은 입술에 턱이 있고 굽은 밑이 외반 되었으며 모래비집의 받침인 점 등 말기청자의 양상을 보인다.

20) 『考古美術』第165號, 韓國美術史學會, 1985. 3. 15에 실린 p.52의 圖 41, p.66의 圖 125~128, p.85의 圖 246, p.86의 圖 247, p.101의 圖 346~351 參照.

木盒(높이 4.6cm, 口徑 7cm)은 얇은 굽이 있고 뚜껑을 갖추어 고려시대 銅盒의 형태와 同一하고 표면에 칠한 금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身部口緣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水晶舍利壺(높이 4.1cm, 徑 3.3cm)는 球形이고 위에 금박을 입힌 木製이 寶珠形 뚜껑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玉과 織物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舍利孔에서 一括로 盜取하여 日人 수장가의 손에 들어갔던 듯하다.

7) 水晶製舍利壺(圖 3-7)-①, ②)

出土地, 出土經緯 모두 불명하고 李王家美術館에서 1916년 日人 安岡 安으로부터 구입한 유물이지만 받침의 양식이 3群 2)·3)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고려시대 말기의 사리기도 추정하여도 좋을 것 같다.

이 사리기(높이 6cm)는 수정제의 身部에 청동제의 받침·뚜껑·마개를 부착시킨 것이다. 받침은 6각이고 모마다 발이 달리고 그 사이는 眼象形으로 처리하였으며 상면에는 2단의 伏蓮을 양각하였고 그 위에 다시 3층의 동판 仰蓮을 오려 붙여서 중심에서 솟은 꼭지에 身部 밑에 있는 구멍을 끼워서 받치도록 하였다. 뚜껑은 역시 축으로 끼웠는데 伏蓮을 身部 위에 덮히도록 되었고 그 위에 寶輪 4개와 寶珠가 相輪 구실을 하고 있다. 身部는 球形인데 세로 구멍이 뚫려서 받침에 안전하게 놓이고 뚜껑을 고정시키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간에서 이 구멍과 연결하여 옆으로 도 하나의 구멍을 뚫었고 이곳에 龜面의 마개를 막게 되었다.

보기드문 器形이며 옆에 난 구멍을 통하여 사리를 수장하였던 듯하다.

4. 浮屠의 例

浮屠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승려의 墓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佛塔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價値의 차가 있으므로 자연 장엄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고려시대의 부도에 장치된 장엄구는 같은 시기의 佛塔의 장엄구에 비해서 큰 차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우며 뿐만 아니라 舍利器의 형식도 佛塔의 사리기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佛塔 장엄구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1)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구(圖 4-1)-①)

이 사리구는 일정 때 원소장처에서 약탈되어 일본 상인을 경유하여 유출되어서 1939년 보스턴 미술관에 수장된 것으로 원소장처는 물론 발견경위나 搬出유물에 관한 사실은 一切不明이나 원소장처는 경기도 長湍 華藏寺의 指空塔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이 유물은 현재 舍利外塔과 그 안에 內藏되었던 5기의 舍利塔으로 구성되어 있다. 舍利外塔은 (높이, 22.5cm, 徑 12cm) 받침과 塔身으로 구성된 평면 원형의 銀製로서 받침에는 眼象形으로 처리된 12개의 발이 달렸고 그 위에 2열에 걸쳐 작은 伏蓮을 돌렸으며 그 위에 다시 은판을 오려

21)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p.187, no.76, 一志社, 1985.

서 만든 2층의 仰蓮을 세운 다음 內面에 턱을 만들어서 塔身이 이 턱 밖에 씌워지도록 되었고 舍利塔 5기는 이 턱 안에 안치되었던 것이다. 塔身은 매병 상반부와 같은 형태이고 입이 있을 위치에 相輪部가 얹혀있어서 일견하여 라마탑을 연상하게 된다. 어깨에는 2단의 伏蓮帶가 있고 그 밑으로 6개에 원반에서 좌우로 줄이 늘어져 3각형을 이루는 정점에 큰 원반이 달리는 垂飾이 옆으로 연속 조각되었다. 相輪은 채감되는 9輪 위에 寶蓋와 寶珠가 있는데 어깨의 垂飾과 相輪部에는 도금하였다.

小舍利塔 5基(높이 각 5cm) 역시 은제로서 蓮花臺, 塔身, 寶蓋, 相輪으로 구성되었다. 伏蓮 위에 8각의 塔身이 놓이고 역시 8각의 寶蓋위에 2개의 寶珠가 놓였다. 이 5기의 탑에는 각각 8각 塔面에 1자씩과 底面에도 다음과 같은 글자가 음각되었다.

- ① (각면) 釋迦如來舍利五枚, (저면) 釋迦如來,
- ② (각면) 迦葉如來舍利二枚, (저면) 迦葉如來,
- ③ (각면) 定光如來舍利五枚, (저면) 定光如來,
- ④ (각면) 指空祖師舍利五枚, (저면) 指空祖師,
- ⑤ (각면) 懶翁祖師舍利五枚, (저면) 懶翁祖師²²⁾

이 舍利外塔의 형태는 基壇을 蓮花臺로 대치한 점이 다를 뿐 라마탑의 형태와 동일하며 至大三年銘舍利器, 李成桂發願舍利器, 湖巖美術館藏舍利器 등과의 연관이 밀접하며 그 안의 小舍利塔의 형태 또한 水鍾寺浮屠, 普濟尊者塔, 李成桂發願舍利器 外塔과도 동일하다.

2) 令傳寺普濟尊者舍利塔發見遺物(圖 4-2)-①~⑨

令傳寺址에 있던 2基의 普濟尊者 舍利塔은 1915년 원위지에서 景福宮으로 옮겨왔고 그 때 발견된 誌石에 의하여 외형이 三層佛塔의 定型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佛僧의 舍利塔임을 알게 되었고 誌石과 함께 일련의 舍利具가 발견되었다.

2基中 誌石과 銅盒·銀製龕·銀製筒·靑磁碗 등을 안치한 탑이 誌石에 명시한 바와 같이 主塔인 西塔이고 다른 1基에는 銅盒과 石製盒을 안치하였는데 이 탑이 東塔으로서 道人 學修는 主塔에 普濟尊者의 舍利 1매를 봉안하였고 比丘尼 妙覺은 東塔에 舍利 1매를 봉안하였음이 역시 誌石에 명기되어 있다.

誌石은 약 20cm 방형에 두께 1.8cm의 점판암질의 판석이고 음각한 자획은 정연하다. 「洪武二十一年戊辰」의 연기는 고려 禡王 14(1388)년이다.

銅盒은 대소 2개인데 큰 것은 몸보다 뚜껑이 높고 상면이 둥글게 용기되었고 몸과 뚜껑에는 「施主元老」의 4자가 각각 點刻되었다. 높이 8.4cm. 작은 것은 몸이 높고 뚜껑은 얇고 상면은 평평하다. 몸과 뚜껑에는 「施主元氏」의 4자가 각각 點刻되어 있다. 합 안에는 「皇宋通寶」 1매와 香木片 들이 들어 있었다.

22) Fontein, Jan ; *Korean Art in Western Collections* : 9 museum of Fine Arts, Boston, Part 1, metal work and sculpture ; Korean culture vol.5 no.4 Dec.1984.

銀盒은 평면 6각이며 밑에는 眼象이 표현된 6개의 발이 달리고 그 위에 伏蓮座가 있어서 6각의 身部를 받치고 있다. 龕身 각 면은 隅柱形으로 구분하고 七寶文이 음각하였으며 屋蓋는 기와골과 마루를 3단에 걸쳐 표현한 다음 정상에 납작한 꼭지가 붙어 있다. 높이 4.5cm.

銀筒은 높이 4cm 정도의 원통이고 표면에 장식문양은 없으며 반원형의 납석제 뚜껑을 덮었다. 舍利는 銀龕과 이 銀筒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靑磁碗은 높이 6.2cm 口徑 19.2cm의 비교적 큰 그릇이지만 내면에 3조의 白土象盒 同心圓만이 있는 下品이다.

東塔의 유물 가운데서 銅龕 2개는 각각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작은 것(높이 9.2cm)은 표면에 수 조의 횡선이 있는 柑形이고 뚜껑은 굽이 있는 碗을 얹어 놓은듯 하다. 몸에는 「施主元龍」의 4자가 점각되었다. 큰것(높이 12.9cm)은 전체가 球形을 이루었고 위가 융기되어 반원형이 되었고 오목한 꼭지가 달렸다. 표면장식은 없다.

납석제 호는(높이 8.5cm) 밑에 굽이 달리고 납작한 몸 표현에 가는 횡선이 돌려있다. 뚜껑 위에는 큰집한 꼭지가 있다.

普濟尊者는 곧 懶翁이고 그의 舍利는 神勒寺에 안치되어 있어서 令傳寺의 것은 分舍利했음을 알 수 있다. 장엄구는 빈약한 편이지만 舍利를 봉안한 탑의 형태가 僧舍利塔의 八角圓堂形과 다르다는 점이 주목되며 舍利를 納置하였던 銀製小龕의 형태는 水鍾寺浮屠, 李成桂發願 舍利器 등과 같은 樣式系列에 속한다.

3) 水鍾浮屠發見遺物(圖 4-3)-①~④)

楊平郡龍門面曹峴里 水鍾寺 경내에 위치한 浮屠에서 일연의 유물의 발견시기는 1939년으로서 발견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해올 뿐 浮屠 안에서의 장치 위치나 장치상황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유물들이 산일되지 않은 원상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유물은 靑磁蓋付壺, 銀製鍍金舍利器, 金銅九層塔이고 舍利器와 塔이 裂片, 香木 등과 함께 靑磁壺 속에 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靑磁壺(높이 31.4cm, 口徑 25.7cm)는 元末明初에 중국 龍泉窯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 어깨가 퍼지고 밑이 훔친 형태이다. 표면 전체에 밀집된 縱行稜線의 누비무늬가 있고 청록색의 유약이 잘 녹아서 윤택이 아름답다. 굽 밑과 입 가에는 유약이 없어서 고운 석간주색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뚜껑은 6엽의 연꽃형이고 표면에는 蓮唐草文이, 이면 중앙에는 모란문이 각각 양각되고 표면 중앙에는 圓안에 작은 꼭지가 있다. 뚜껑은 몸과 따로 구은듯 황록색을 띠고 있다.

金銅九層塔은 알고 폭도 좁아 塔身部에 비해 불안정해 보이는 기단에는 4柱를 세우고 각 면에는 목조건조물의 花盤 같은 것이 연속되어 眼象을 투각한 것같이 보이며 그 위부분에 斜格子文이 음각되었는데 전체모양이 얇은 테불같고 상면에는 2단의 伏蓮으로 괴임을 마련하였다. 塔身部는 각 층이 1면 3간씩이고 초층에는 雷文이 음각된 기단보다 훨씬 넓은 난간을 돌렸고 屋身은 1면은 3간이 모두 개방되었고 다른 3면은 중앙간만 개방되고 좌우간에는 斜格子文이 투각되었다. 2층

이상의 屋身은 급격히 축소되어 얇고 형식적인 난간이 있고 중앙 1간에만 영창형을 투각하였을 뿐 다른 면은 막혔다. 옥개는 초층이 특히 넓고 2층부터는 차례로 채감되었으며 낙수면에는 기와 골과 마루가 있고 반전된 추녀 끝에는 風鈴이 하나씩 달려있다. 相輪은 여러 개의 귀꽃을 세워서 형성하고 추녀 위를 향하여 네 줄 쇠줄이 느러져 있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도금색이 전면 에 잘 남아있다(높이 12.7cm).

舍利器는 상하 6각형인데 臺座·身部·屋蓋의 3부로 구성되었다. 臺座는 24엽의 伏蓮에 연결해서 18엽의 仰蓮을 세웠고 그 안에 들도록 6각의 높은 턱을 만들고 표면을 상하로 2분한 다음 하단에는 연꽃을, 상단에는 仰蓮을 각각 음각하여 그 안에 舍利器를 안치하도록 되었다. 身部는 분리하여 만들어 기단의 仰伏蓮 안에 들어가도록 6각으로 만들었는데 모마다 隅柱形을 표시하고 아래 위에 花文을 음각한 文樣帶를 돌렸으며 그 사이에 蓮花唐草와 七寶文을 교대로 투각하는 세공을 보이고 있다. 屋蓋에는 隅棟과 4단으로 된 기와골이 있으며 相輪은 仰蓮과 火焰寶珠로 되어 있다. 身部 안에는 五輪塔形의 水晶製 舍利瓶이 놓여 있다(舍利器 全高 17.4cm).

이 일련의 사리기는 1391년 李成桂가 원납하였다는 金剛山 月出峰 발견의 舍利器 도는 令傳寺 普濟尊者舍利塔에서 발견된 銀製龕 등과 비교될 수 있고 그 자체의 양식으로 보아 라마佛像의 연화좌양식이 나타나는 고려시대 최말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IV. 考 察

以上 佛塔과 浮屠 등 33例의 莊嚴具를 通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고찰하여 고려시대 舍利莊嚴具의 특색과 성격을 고찰할 단계가 되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佛塔·浮屠에서 발견되었거나 고려시대에 제작된 舍利莊嚴具의 예는 이제까지 거론된 발견예 외에도 또 있으나 그러한 것들은 발견유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시납되었던 일괄유물과 유리되었거나, 심지어 발견된 관련된 知見을 결실한 채 해외로 유출되기도 하여서 자료로서 채택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다. 예컨대 宜寧 寶泉寺址三層石塔의 유물들은 1967년에 도굴된 것을 동년에 복원하였는데 塔身部에는 舍利孔이 없고 상층기단 내부 잡석층에서 銅佛立像, 同光背片, 土塔 2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지금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實査가 불가능하며, 密陽小臺里五層石塔은 1919년 相輪部에서 발견되었다는 乾統9년(고려 睿宗 4, 1109)의 年記를 가진 白紙墨書의 造成記가 개인소장으로 돌아갔을 뿐 그 외의 舍利에 관한 知見은 없으며, 일본으로 유출된 舍利函, 舍利壺 등은 그 중에는 銘文이 있어 다소의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모두 관계 知見이 완전히 결실된 호사가의 희생물인 점에서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등등이다. 그러나 이들 유물이 전혀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찰의 단계에서 약간의 언급은 필요할 것 같다. 이하 아직까지 거론된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고찰하기로 한다.

1. 첫째 舍利容器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라시대의 塔婆, 예컨대 佛國寺三層石塔, 松林寺塔婆 등에서와 같이 정제세련된 형태의 유리제 사리병은 益山王宮里石塔에서 발견되었을 뿐이고 普願寺

址石塔에 벽이 두꺼운 暗綠色 소형 유리병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초기 석탑에서 古式을 계승하고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유리로 舍利容器를 제작하는 風이 사라지고 오히려 銀·銅 등의 금속 혹은 수정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浮兜寺址石塔에 있었던 綠釉盒, 開寶·大平興國銘의 誌石을 동반한 舍利具에서 사리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용기가 綠釉小壺였다는 점²³⁾ 특이한 존재인데 이들이 모두 고려 顯宗 22년(1031)과 光宗 26년(975)의 年記를 동반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용기의 형태가 瓶形 보다는 壺形 또는 盒形이 많은 점도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다.

2. 다음 舍利容器를 外護하던 外函의 형태도 感恩寺石塔, 松林寺塔, 佛國寺石塔 같은 羅代의 호사로운 것은 거의 없고 다만 光州西塔에서 매우 간략하지만 羅代의 殿閣形을 따른 유일례가 있을 뿐 대부분 筒形, 八角塔形, 또는 盒形 등 간단한 것들이다.

筒形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金山寺石塔, 牙山邑內里石塔, 青陽西亭里石塔, 普濟尊者塔, 聞慶鳳笙里出土品 등에서와 같은 상하 같은 크기의 圓筒形이고 다른 하나는 器臺와 相輪을 갖춘 라마탑 형태를 따른 것이다. 그 중 라마탑 형태를 모방한 것은 至大 3년(1310)명사리기, 洪武 24년(1391)명 李成桂發願 사리기, 華藏寺指空塔에 장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Boston 미술관의 사리기 등 고려 최말기의 예에서 볼 수 있고 湖巖美術館소장의 강원도 석탑에서 발견되었다는 靑磁壺를 동반한 사리기, 출토지 미상의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사리기 등도 同類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8각형탑은 전기 李成桂발원 사리기, 水鍾寺浮屠 사리기를 비롯하여 일본으로 유출된 至治 3년(1323)명의 사리함을 포함하여 京都·奈良 등지의 개인들이 소장한 金銅八角函 등은²⁴⁾ 모두 동일 양식계열에 속하는 것들이다.

합속에 사리용기를 넣었던 예는 無量寺石塔, 月精寺石塔, 浮兜寺石塔, 聖風寺石塔, 慶州春宮里石塔, 聞慶鳳笙里出土品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형식은 대동소이하나 聖風寺石塔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초기청자 합은 統和 27년(1009)의 年記를 가진 誌石을 동반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매우 주목되는 존재이다.

3. 다음 莊嚴具 중에서 佛像은 普願寺址石塔, 浮兜寺石塔, 新元寺石塔, 水源寺石塔, 南溪院石塔을 제외하고는 모든 石塔에서 발견되고 있다. 像形, 像의 종류, 像의 數, 安置위치 등은 모두 일정하지 않아서 발견된 수나 위치가 과연 원형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銅 또는 金銅製가 기단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公州東院里石塔에서 납석제 불상이 발견되었고 扶餘長蝦里石塔에는 상아제의 정교한 상이 있었으며 月精寺石塔에서 은제도금불상이 발견되었고 충북 槐山郡水岩里에서는 三尊佛龕이 발견된 점 등은 주목된다.

4. 불경은 南溪院塔에서 紺低銀泥妙法蓮花經 全7권이 발견된 점과 益山王宮里石塔에 金板金剛經을 시납한 점이 특기할 일일 뿐 이에 대응할만한 佛經의 발견례는 없다. 다만 無量寺石塔과 扶

23) 黃壽永, 前掲書, p.177, no.68, 一志社, 1976.

24) 奈良博物館, 『佛舍利の莊嚴』, 韓國篇 21, 24.

餘長蝦里石塔에서 다라니經과 月精寺石塔에서는 부식되어 종류를 알 수 없는 경문의 발견례가 있을 뿐이다.

5. 신라시대의 석탑에서와 같이 석탑 造成 또는 舍利藏置에 관한 기록이 장엄구와 함께 納置된 예가 있다. 淨土寺石塔, 鳳鶴寺石塔, 密陽小臺里石塔에서는 白紙墨書의 形止記가, 聖風寺石塔, 普濟尊者浮屠에서는 별도의 石板石에 刻字하였고 李成桂發願舍利器, 至大三年銘舍利器, 開寶·大平興國銘舍利器²⁵⁾ 등에는 사리기 자체에 직접 각자하였다. 白紙墨書의 形止記를 內藏하였음은 새로운 手法이며 誌石을 藏置한 例는 이 외에 淳化四年銘 塔誌,²⁶⁾ 東臺塔 誌石²⁷⁾ 등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6. 신라시대에는 小塔 99基를 塔身에 施納한 例를 볼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99기는 아니지만 小塔을 施納한 例가 있다. 발견된 수 또는 발견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 수가 원래의 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은 불상의 경우와 같다. 材質은 普願寺石塔, 公州東院里石塔, 水源寺石塔, 廣州春宮里三層塔의 小塔들은 모두 납석제이며, 金山寺石塔과 開城부근에서는 銅塔 各 1기가, 寶泉寺石塔에서는 土塔이, 南普賢寺石塔과 扶餘長蝦里石塔에서는 木塔이 각각 발견되었으나 扶餘長蝦里의 木塔에는 금박이 입혀있어서 주목되었다. 형식은 다양하고 그 중에는 매우 정교한 것도 있다.

7. 이상과 같은 장엄구 외에 佛子들이 施納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 銅鏡 — 月精寺石塔, 光州西塔
- 銅錢 — 金山寺石塔, 新元寺石塔, 普濟尊者塔
- 璧 — 扶餘普光寺石塔
- 鈴 — 益山王宮里石塔
- 漆器 — 扶餘長蝦里石塔
- 銀製뒤꽂이·小環 — 扶餘長蝦里石塔
- 香木 — 無量寺石塔, 月精寺石塔
- 玉類 — 거의 모든 유구에서 발견된다.

등이다. 이 중 璧의 施納은 비록 破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지금까지 유일한 예이며 銅鏡을 시납한 석탑이 2례인 점은 신라시대 석탑에서는 佛國寺三層石塔 뿐이었던 점에서 주목되며 芬皇寺石塔에서 五銖常平·崇寧通寶 등 宋代 銅錢이 발견된 예와 같이 金山寺塔·新元寺塔·普濟尊者塔에서 각각 銅錢이 발견되었다. 香木은 두 석탑에서만 확인되었으나 다른 석탑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玉類도 많은 석탑에 보편적으로 들어 있었다.

25) 黃壽永, 前掲書, p. 177, no. 68.
 26) 黃壽永, 前掲書, p. 143, no. 52.
 27) 黃壽永, 前掲書, p. 179, no. 69.

V. 結 語

고려시대 舍利藏嚴具의 발견례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고 원형에서 조사된 예는 불과 11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빈약한 자료를 토대로 전반을 논할 수는 없으나 알려진 자료만이라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1. 舍利容器는 재료가 변화되어 銀·銅 또는 水晶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시대에 신라시대 유리제 사리병과 대등할만한 유리제 사리용기를 사용한 예는 金製金剛經板을 동반한 益山王宮里石塔 단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같은 호화로운 용기와 장엄구를 시납한 석탑이 건립된 지점의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인연에도 유의할만 하다.

2. 舍利外護器는 羅代의 殿閣形을 따른 예 또한 光州西塔 1에 뿐이고 그외는 8각, 6각, 방형 등의 龕形이거나 銅盒 같은 간략한 용기를 사용하였고 磁器를 사용하는 시대적 특징도 보이고 있다.

3. 불상의 施納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신라시대에 全金佛像의 施納같은 호화로운 것은 아니고 또 비록 원형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 할지라도 13예라는 다수의 예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대체로 소형상들이지만 無量寺石塔의 경우 그 安置形式은 槐山出土의 三尊佛龕의 施納과 연관지워 생각할만 하다.

4. 佛經의 시납은 南溪院石塔과 益山王宮里石塔의 2례를 제외하면 매우 빈약하다. 또 이 兩塔의 건립이 고려시대에도 비교적 빠른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경의 시납은 고려시대 초기를 지나면 거의 업서졌다고 할 수 있다.

5. 신라시대에도 석탑 자체 또는 사리장치에 관한 기록을 석탑에 刻字되고 특히 紙本墨書의 形止記 등을 納置하는 일도 하나의 특색으로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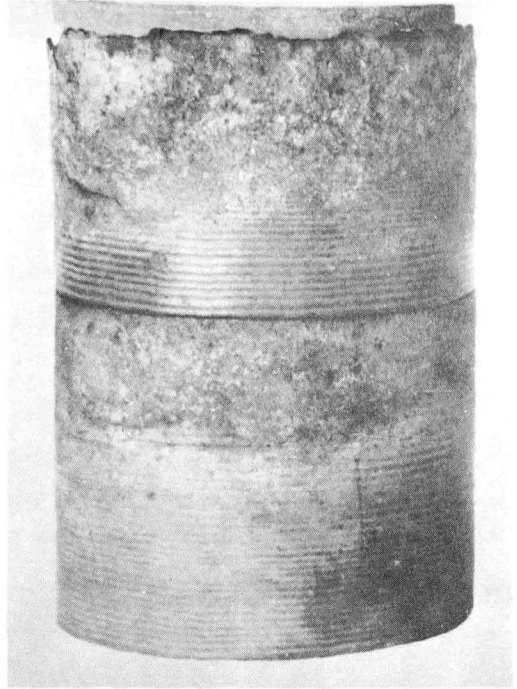
6. 신라시대에는 塔身 舍利孔에 99탑을 시납한 예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 여러 材質이 小塔이 많으면 29基, 적으면 2기 정도 발견되었으나 그것이 99기 시납의 형식과 연결되는지도 불명일 뿐 아니라 발견장소 또한 탑신부 사리공 아닌 기단부에서 무질서하게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前代 관습의 단순한 모방일 뿐 99기 藏納의 정신적 배경은 사라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7. 고려말기에는 舍利外護器에 라마탑의 형식이 농후하게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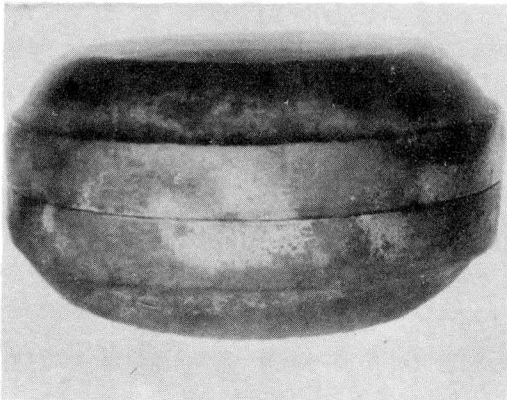
이상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거니와 이들을 총괄하면서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의 양상은 초기에는 신라시대 장엄구의 형식을 계승 유지하였으나 12세기경부터는 고려의 독자적 형식이 형성되었고 13세기말경 元의 문화가 침투하면서부터는 元의 문화양식이 현저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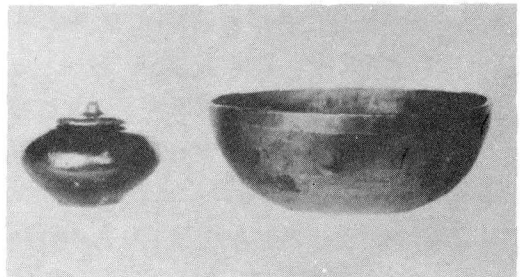
〈圖 1-1)-①〉 銀製如來主像



〈圖 1-1)-②〉 銅製圓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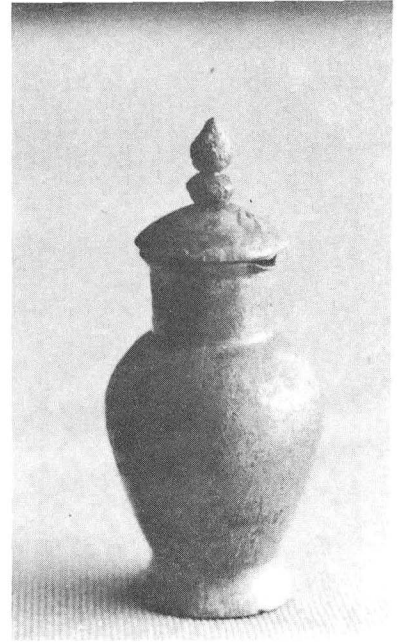
〈圖 1-2)-①〉 浮兜寺塔舍利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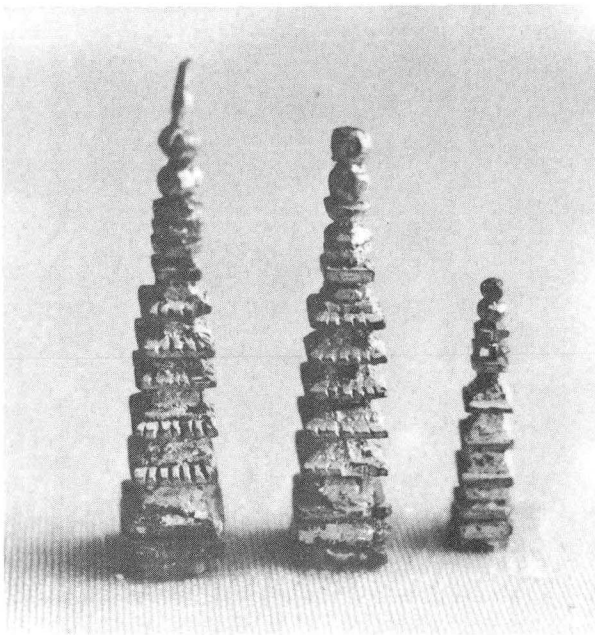
〈圖 1-2)-②〉 浮兜寺塔舍利壺



〈圖 1-3)-①〉 1962년 발견 숭리壺



〈圖 1-3)-②〉 1962년 발견 숭리內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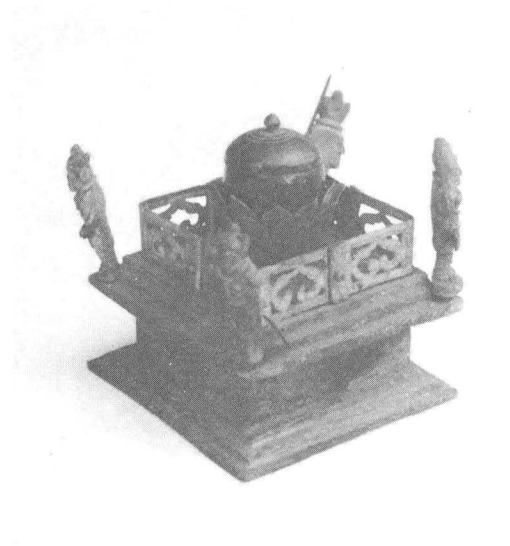
〈圖 1-3)-③〉 1931년 발견 木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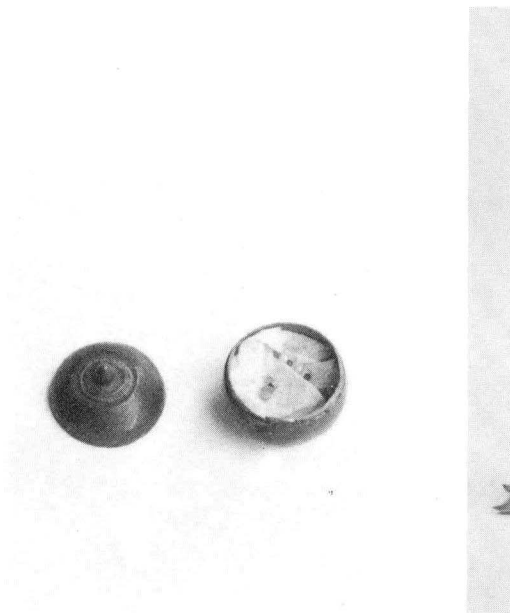
〈圖 1-3)-④〉 1931년 발견 象牙製佛像



〈圖 1-4)-①〉 光州西塔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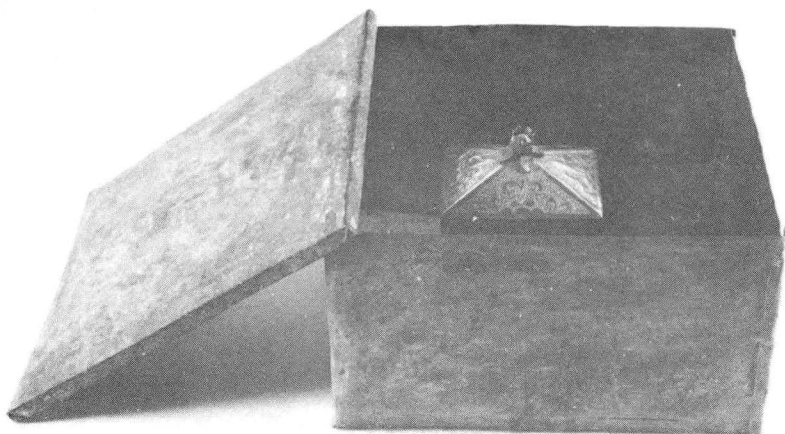
〈圖 1-4)-②〉 光州西塔舍利壺



〈圖 1-4)-③〉 光州西塔舍利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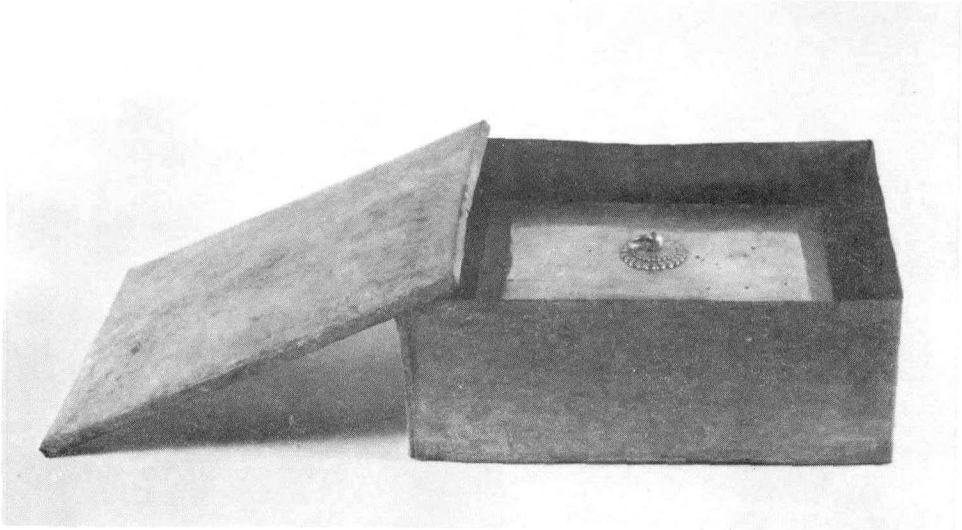
〈圖 1-5)-①〉 益山王宮里塔舍利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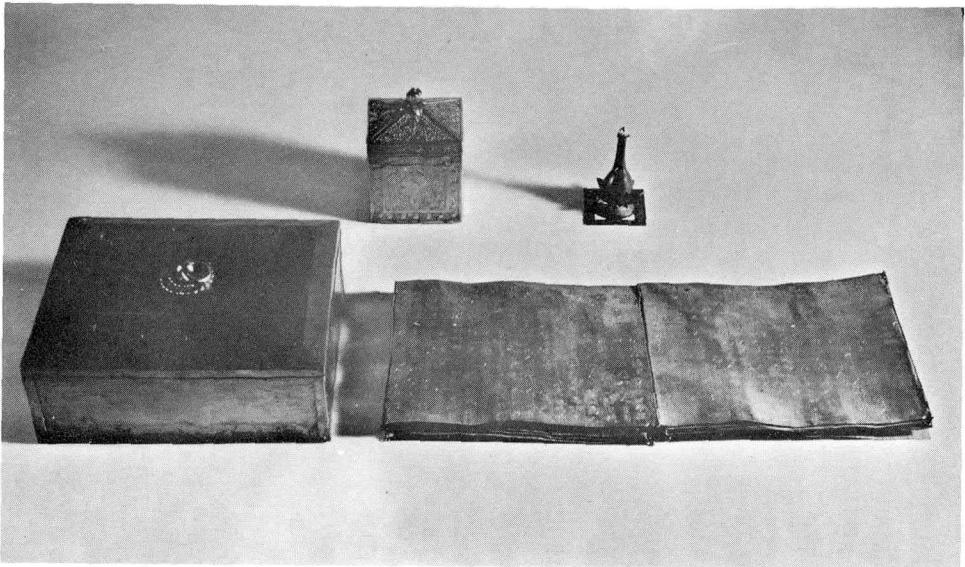
〈圖 1-5)-②〉 益山王宮里塔舍利瓶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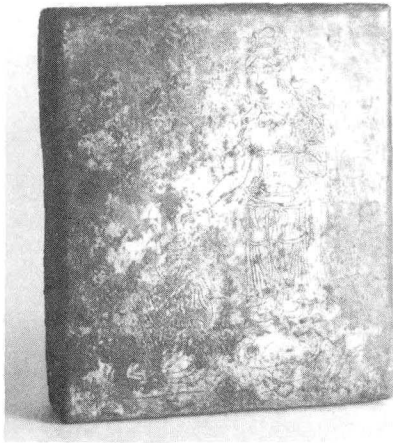
〈圖 1-5)-③〉 益山王宮里塔舍利瓶內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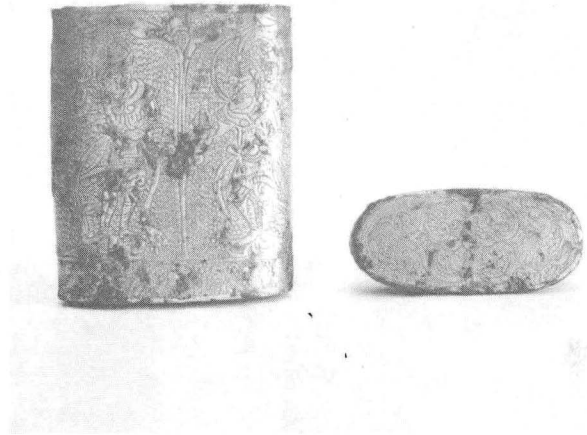
〈圖 1-5〉-④ 益山王宮里塔金板金剛經函



〈圖 1-5〉-⑤ 益山王宮里塔舍利瓶 및 金剛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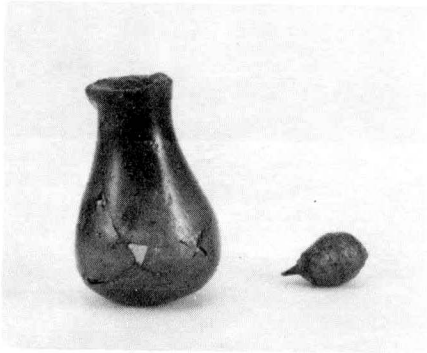
〈圖 1-6)-①〉 金剛方匣平跗上面



〈圖 1-6)-②〉 金銅內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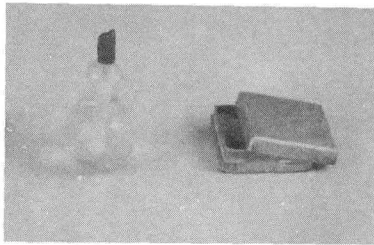
〈圖 1-6)-③〉 石製小塔



〈圖 1-6)-④〉 유리製舍利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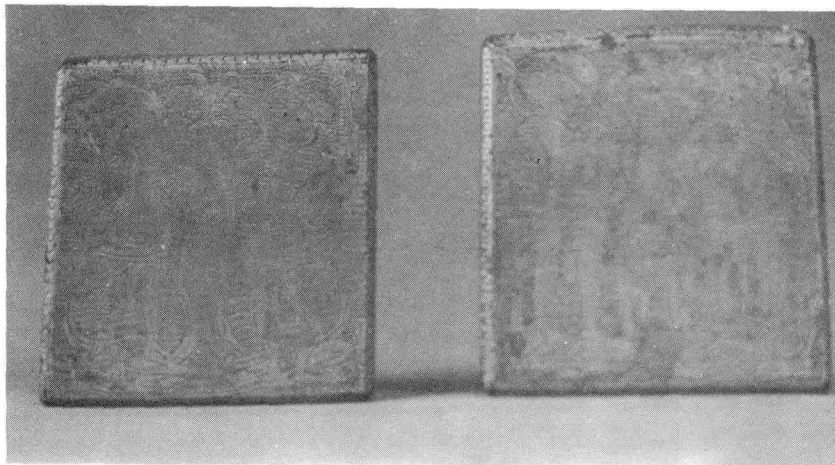
〈圖 1-6)-⑤〉 玉類



〈圖 1-7)-①〉 月精寺八角九層塔舍利瓶



〈圖 1-7)-②〉 月精寺八角九層塔舍利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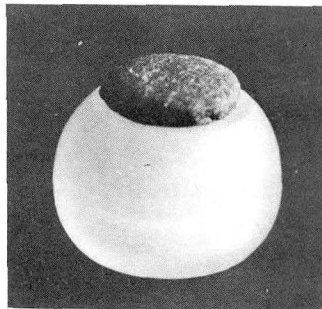
〈圖 1-7)-③〉 月精寺八角九層塔方盒



〈圖 1-7〉-④ 月精寺八角九層塔銅鏡



〈圖 1-8〉-① 無量寺石塔金銅三尊像



〈圖 1-8〉-③
無量寺石塔
日政時 발견되었다
는 水晶製壺



〈圖 1-8〉-② 無量寺石塔金銅菩薩坐像



〈圖 1-9〉-① 金山寺塔金銅菩薩坐像



〈圖 1-9〉-② 金山寺塔金銅菩薩坐像



〈圖 1-9〉-③ 金山寺塔金銅如來坐像



〈圖 1-9〉-④ 金山寺塔金銅如來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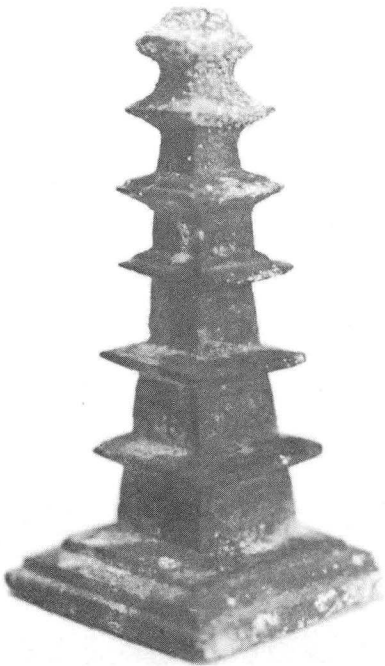
〈圖 1-9〉-⑤ 金山寺塔金銅菩薩立像



〈圖 1-9〉-⑥ 金山寺塔金銅菩薩立像



〈圖 1-9〉-⑦ 金山寺塔玉製童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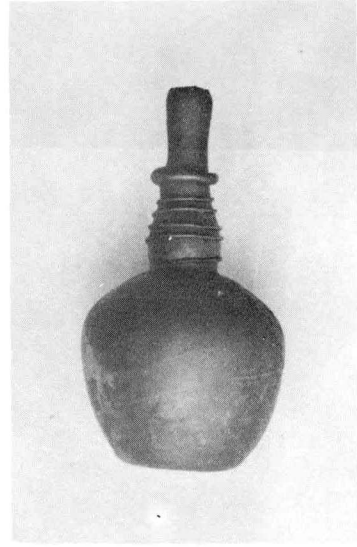
〈圖 1-9〉-⑧ 金山寺塔銅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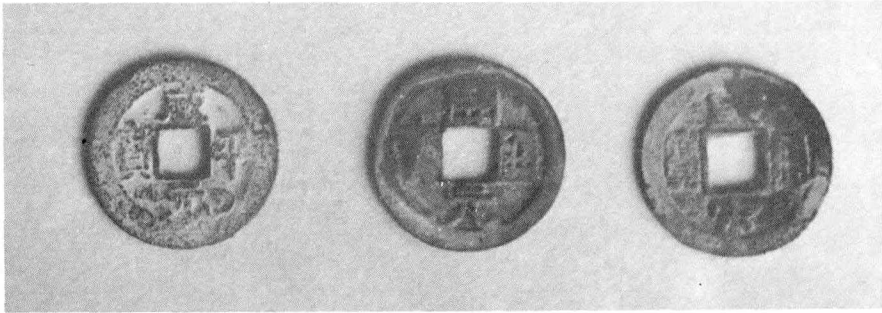
〈圖 1-9〉-⑨ 金山寺塔銅造圓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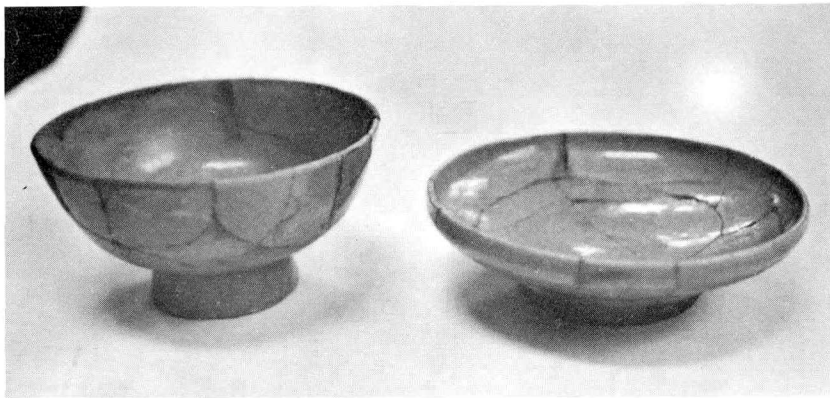
〈圖 1-10〉-① 新元寺塔黃綠釉壺



〈圖 1-10〉-② 新元寺塔異리質瓶



〈圖 1-10〉-③ 新元寺塔銅錢



〈圖 1-11〉-① 青磁舍利器



〈圖 1-11〉-② 塔誌石塔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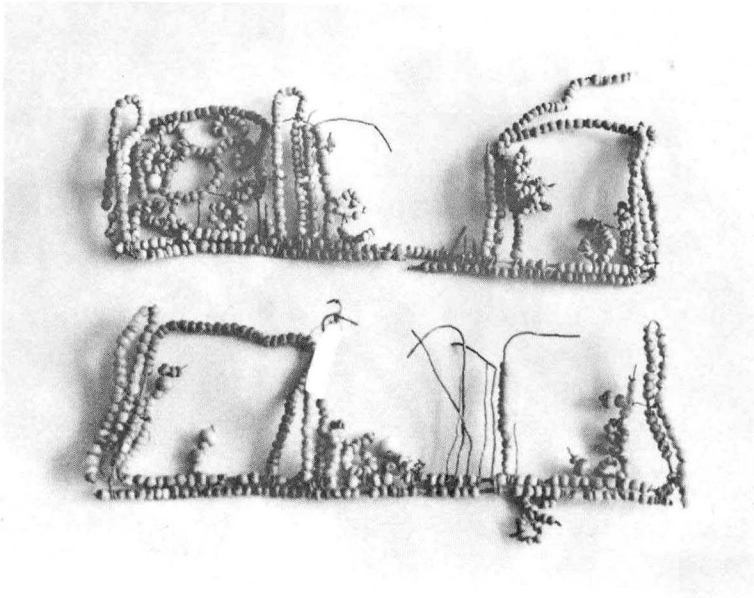
〈圖 2-3〉-① 傳普光寺塔金銅八角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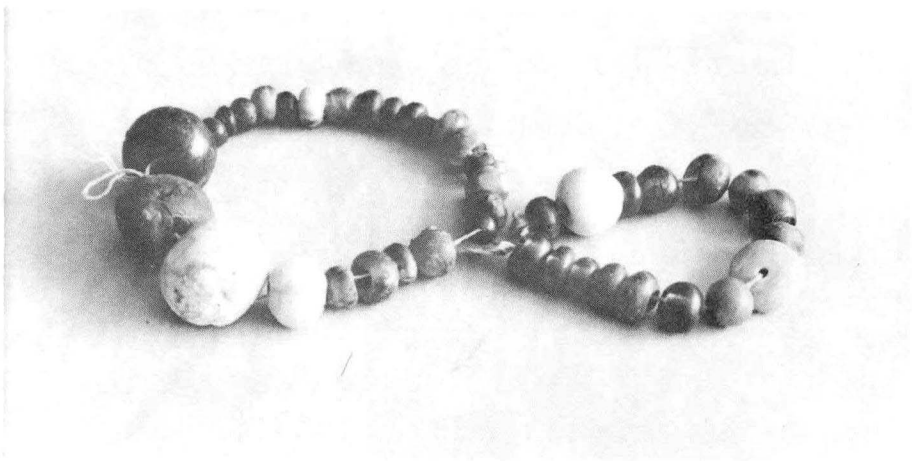
〈圖 2-3〉-② 扶余加神里出土銀製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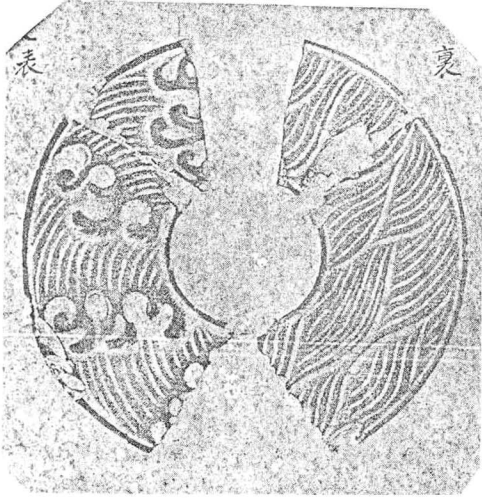
〈圖 2-3〉-③ 扶余加神里出土木製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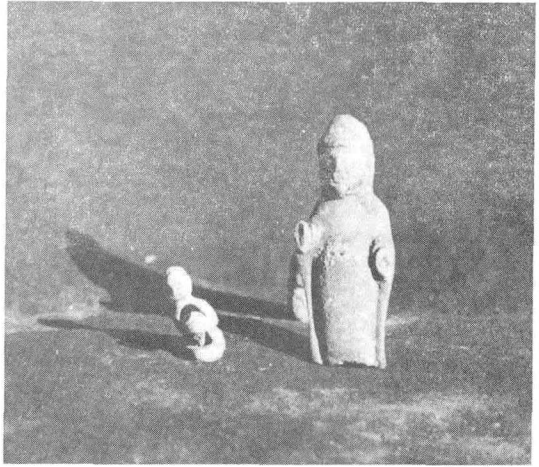
〈圖 2-3〉-④ 扶余加神里出土玉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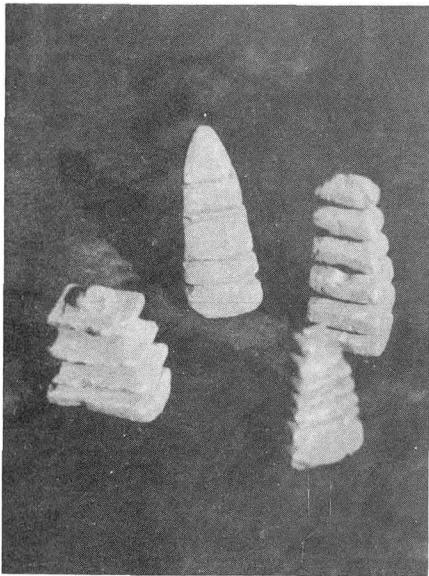
〈圖 2-3〉-⑤ 扶余加神里出土玉類



〈圖 2-3〉-⑥ 扶余加神里出土壁揚影



〈圖 2-4〉-① 銅造如來立像(7cm)과
銅造人物像(2.7cm)



〈圖 2-4〉-② 小塔



〈圖 2-5〉-① 公州東院里塔小塔



〈圖 2-5〉-② 公州東院里塔四面石刻像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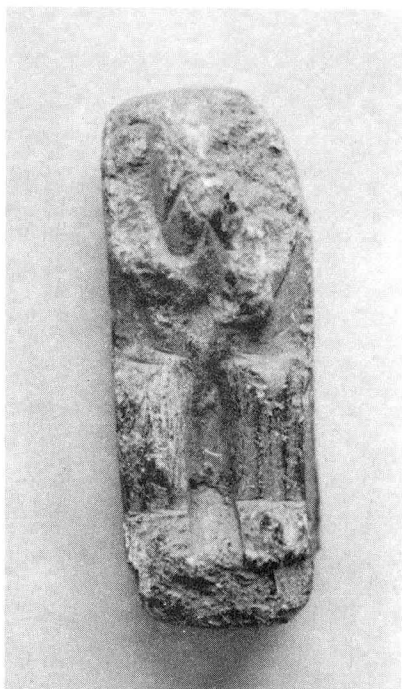
〈圖 2-5〉-③ 公州東院里塔四面石刻像立像



〈圖 2-5〉-④ 公州東院里塔四面石刻坐像



〈圖 2-5〉-⑤ 公州東院里塔四面石刻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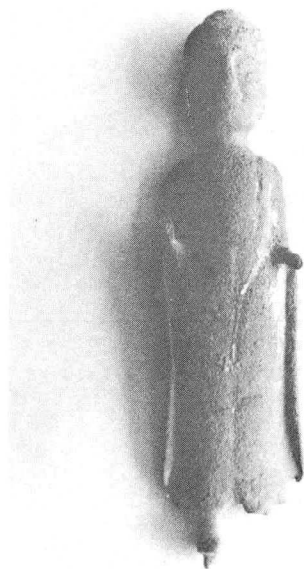
〈圖 2-5)-⑥〉 公州東院里塔倚像
正面



〈圖 2-5)-⑦〉 公州東院里塔倚像
左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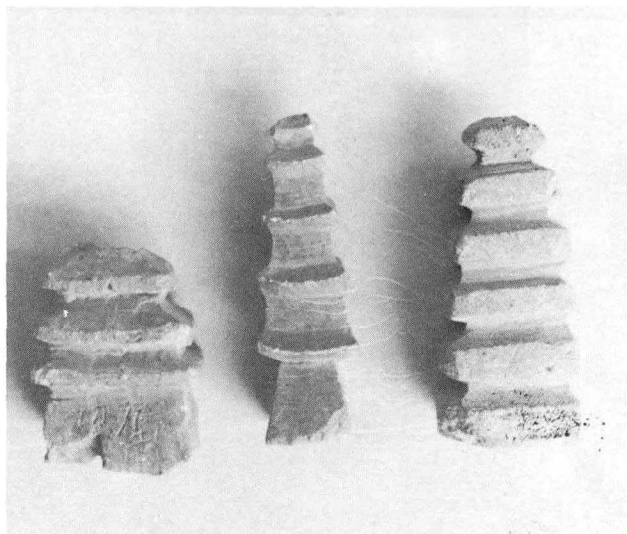
〈圖 2-5)-⑧〉 公州東院里塔倚像
右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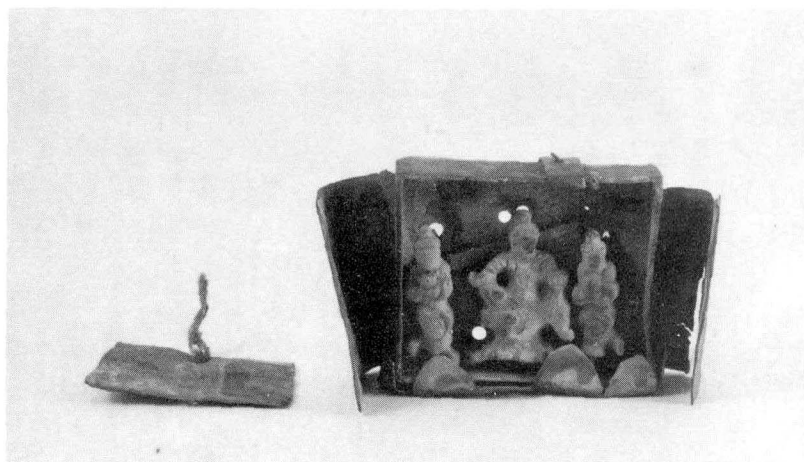
〈圖 2-6)-①〉 扶餘北鼻里塔銅佛左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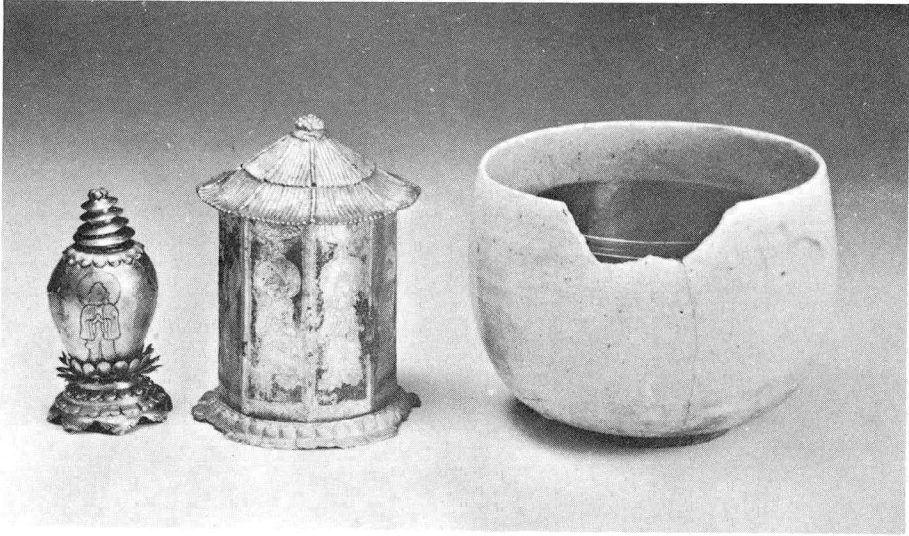
〈圖 2-7〉-① 大興寺北彌勒庵塔
銅佛坐像



〈圖 2-8〉-① 石製小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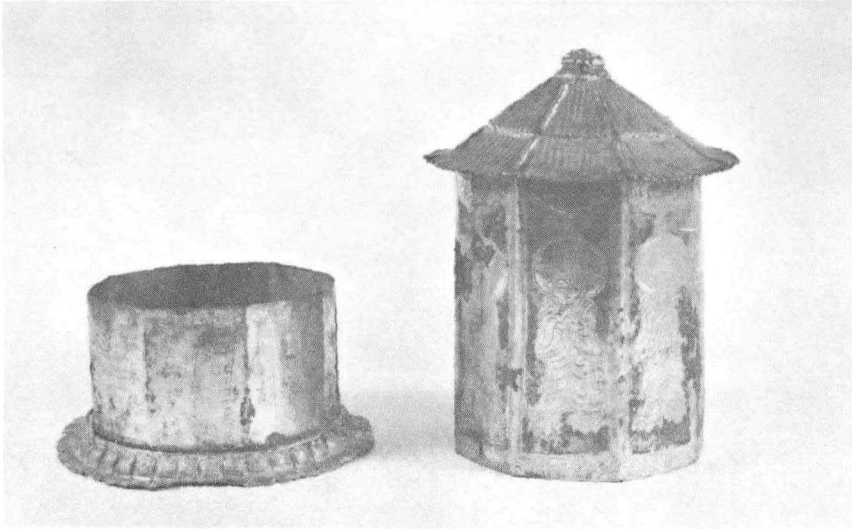
〈圖 2-9〉-① 槐山水岩里塔佛龕 吳 三尊



〈圖 3-1〉-① 李成桂發願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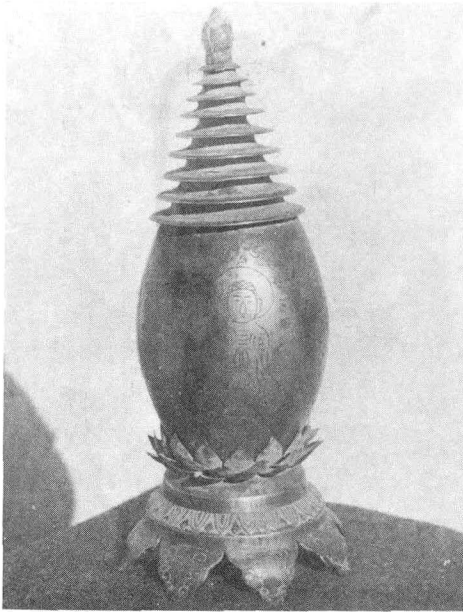
〈圖 3-1〉-② 李成桂發願舍利器



〈圖 3-1)-③〉 李成桂發願舍利器



〈圖 3-1)-④〉 李成桂發願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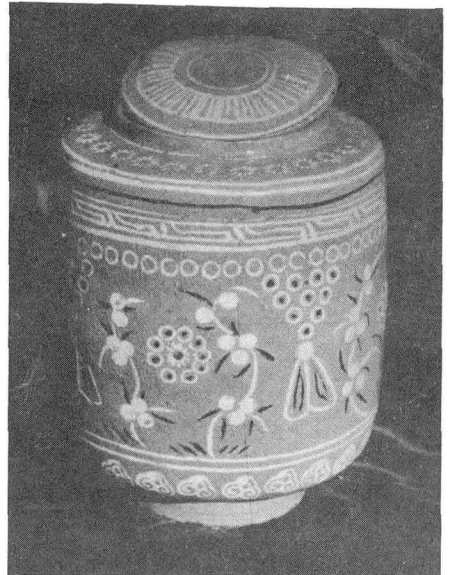
〈圖 3-2)-①〉 至大三年銘舍利器



〈圖 3-2)-②〉 至大三年銘舍利器



〈圖 3-3)-①〉 青磁內藏金銅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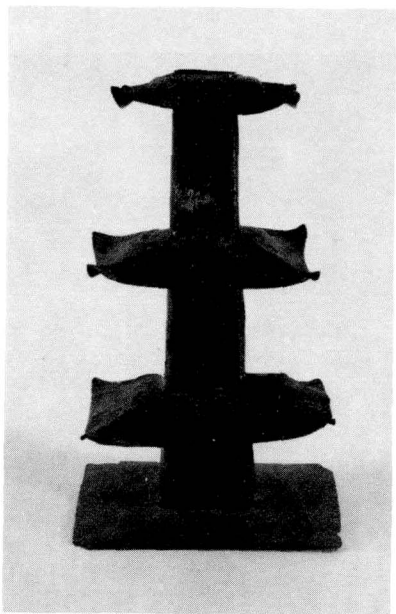
〈圖 3-3)-②〉 青磁內藏金銅舍利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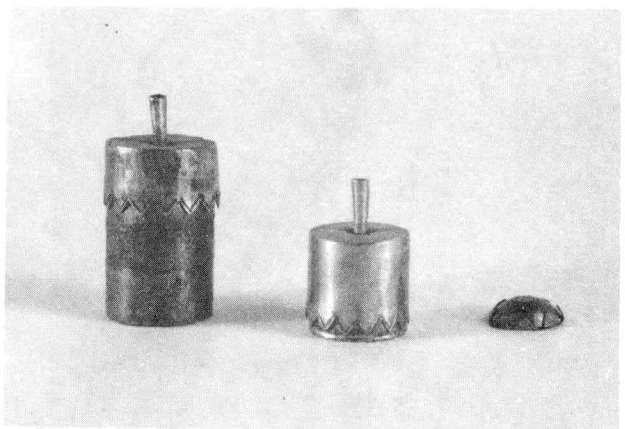
〈圖 3-4〉-① 開城附近發見舍利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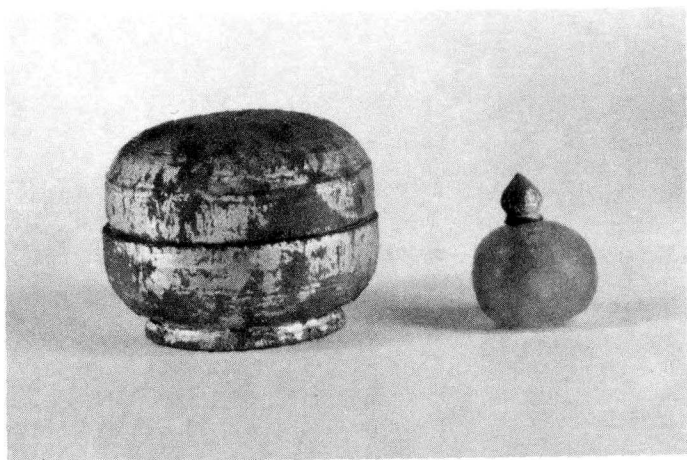
〈圖 3-4〉-② 開城附近出土銀盒



〈圖 3-5〉-① 開城附近出土銅塔



〈圖 3-5〉-② 開城附近出土銀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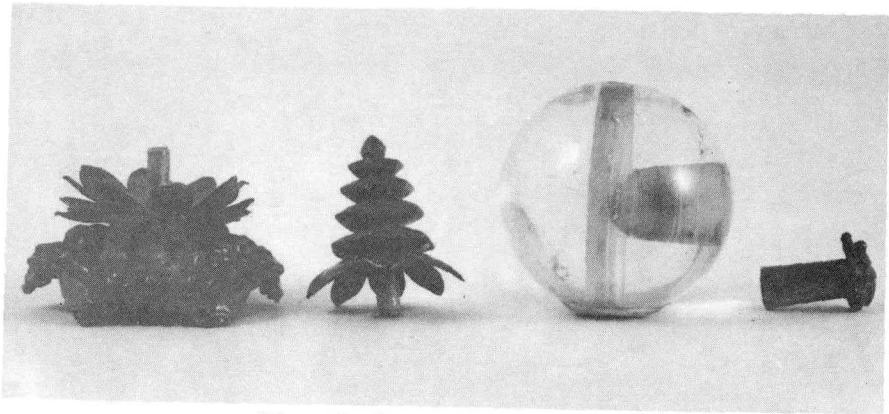
〈圖 3-6)-①〉 聞慶出土木盒 및 舍利壺



〈圖 3-6)-②〉 聞慶出土靑磁碗 및 접시



〈圖 3-7)-①〉 水晶舍利壺



〈圖 3-7)-②〉 水晶舍利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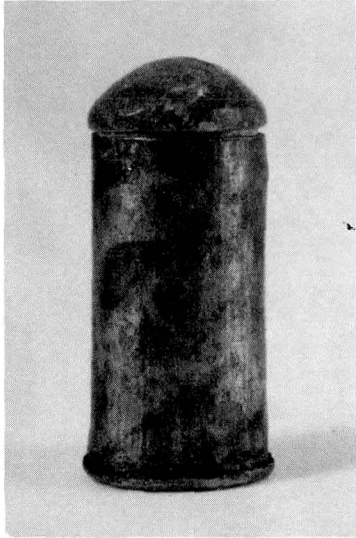
〈圖 4-1)-①〉 Boston 미술관舍利器



〈圖 4-2)-①〉 普濟尊者西塔誌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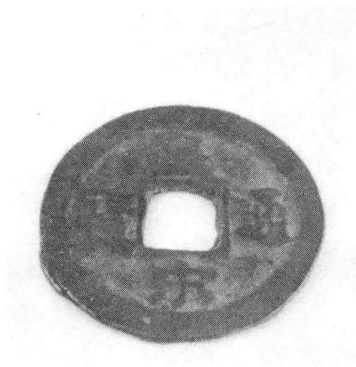
〈圖 4-2)-②〉 尊濟尊者西塔龕



〈圖 4-2〉-③ 普濟尊者西塔銀筒



〈圖 4-2〉-④ 普濟尊者西塔銅盒



〈圖 4-2〉-⑤ 普濟尊者西塔銅盒內
皇宋通寶



〈圖 4-2〉-⑥ 普濟尊者西塔青磁盃



〈圖 4-2)-⑦〉 普濟尊者東塔銅盒



〈圖 4-2)-⑧〉 普濟尊者東塔銅盒



〈圖 4-2)-⑨〉 普濟尊者東塔石製壺



〈圖 4-3〉-① 水鍾寺浮屠舍利器



〈圖 4-3〉-② 水鍾寺浮屠舍利器



〈圖 4-3〉-③ 水鍾寺浮屠舍利器



〈圖 4-3〉-④ 水鍾寺浮屠青磁壺